여연브리프

평점은 영화를 옹호했고, 공감은 비판에 집중됐다

- 영화 암살자(들) 네이버 관람평 데이터로 본 플랫폼 시대의 문화전쟁과 설명책임 -

2026년 11월 3일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평점은 영화를 옹호했고, 공감은 비판에 집중됐다

영화《암살자(들)》네이버 관람평 데이터로 본 플랫폼 시대의 문화전쟁과 설명책임

2026년 11월 3일
전유원 부연구위원



목차

연구결과 요약

핵심 메시지 1

요약 1

I. 서론: 평점 게시판은 왜 전장이 됐는가 3

1.1. 문제 제기 3

1.2. 연구 질문 5

1.3. 연구의 입장 5

1.4. 기존의 문제 제기를 넘어: 이 연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6

1.5. 한국적 맥락: 사건을 읽는 다섯 가지 배경 8

II. 이론적 배경: 평점 논란을 해석하는 여섯 가지 관점 9

2.1. 문화전쟁: 역사 해석의 권위 투쟁 9

2.2. 공론장과 집단 동원: 리뷰 폭격과 침묵의 나선 9

2.3. 사회적 영향 편향: 누적 우위와 알고리즘 편향 10

2.4. 플랫폼 설명책임: 가시성의 정치학 10

2.5. 연결행동과 계산 선전의 경계 10

2.6. 역사 영화의 재현과 예술적 자유의 한계 11

2.7. 소결: 3차원 여론 분석 모델 11

III. 데이터와 방법: 두 개의 탭, 두 번의 수집, 세 측면의 변수 12

3.1. 네이버 관람평의 구조 12

3.2. 수집 개요와 절차 12

3.3. 분류 기준 13

3.4. 데이터의 한계 15

IV. 분석 결과 16

4.1. 발견 1. 평점은 옹호(87%)로, 공감은 비판(78%)으로 양극화됐다 16

4.2. 발견 2. 9월 25일 공감 중앙값이 89% 급감했고, 1위 표시는 다음 날 254분의 1로 축소됐다 17

4.3. 발견 3. 비판은 실관람객 탭에서 9월 말, 네티즌 탭에서 10월 초에 집중됐고 열흘 만에 소진됐다 20

4.4. 발견 4. 인접 관람평에 유사 수치가 반복되는 등 일괄 클릭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23

4.5. 발견 5. 비판은 '역사적 사실성'을, 옹호는 '작품성과 관람 경험'을 말했다 25

4.6. 소결: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비판과 작품성에 대한 옹호는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었다 27

V. 논의: 평점·공감·노출이 충돌한 플랫폼 문화전쟁 28

5.1. 여론의 삼중 분열: 수치 독점의 허구성 28

5.2. 역사 해석의 사법적 권위와 예술적 자유의 충돌 29

5.3. 반응의 단기 폭발과 영향력의 장기 지속성 29

5.4. 사법 판례로 본 공론장의 경계: 창작의 자유와 사실 검증의 공존 30

5.5. 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권력과 설명책임의 부재 30

5.6. 소결: 문화전쟁의 핵심은 반응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권위와 생산의 구조다 31

VI. 정책적 함의: 플랫폼 설명책임과 역사 사실 검증 체계 31

6.1. 포털 평점 집계 오류 및 정렬 기준 변경 영향 검증 32

6.2. 현대사 콘텐츠 사실 대조표 및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3

6.3.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리뷰 플랫폼 설명책임 제도화 33

6.4. 반응하는 공론장에서 생산하는 문화 생태계로의 전환 35

VII. 결론: 여론의 신뢰를 지키고,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의 기억으로 36

부록 A. 교차검증: 언론사 유튜브 댓글에서도 공감은 비판을 향했다

부록 B.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포털·플랫폼 투명성 지적 주요 사례 (국내외 비교)

부록 C. 관람평 내용분석 코드북

부록 D. 해외 주요국의 리뷰·플랫폼 투명성 제도와 집행 사례

참고문헌

표·그림 목록

평점은 영화를 옹호했고, 공감은 비판에 집중됐다

영화《암살자(들)》네이버 관람평 데이터 분석

네이버 관람평 전수 분석: 실관람객 평점의 87.1%는 영화 옹호, 공감의 78.5%는 비판

공감 1위 댓글 137만→5,409→5만(공식 보도) →10만, 플랫폼은 집계·정렬 변경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다

쟁점은 '누가 평점 테러를 했나'가 아니라 '플랫폼이 어떤 절차로 여론 표시를 바꾸는가'

한 편의 영화 평점 게시판이 문화전쟁의 전장이 됐다

2026년 9월 23일 개봉한 영화《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문세광 외 배후설과 유신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렀다. 논쟁은 곧 극장 밖으로 번졌다. 네이버는 9월 29일 공감 중복 집계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공지하고 10월 1일 매크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평점 게시판 정렬을 '최신순'으로 조정했다. 여당은 '조직적 평점 테러', 야당은 '제2의 드루킹'으로 규정했다. 본 보고서는 9월 23일~10월 17일 네이버 관람평을 두 차례(1차 26,506건, 2차 13,035건) 독립 수집해 '표명된 의견(평점)', '표시된 반응(공감·비공감)', '노출된 의견(정렬·표시값)'의 세 차원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공감 반응의 방향은 같은 사건을 다룬 언론사 유튜브 댓글로도 교차검증했다.

같은 게시판에서 평점은 옹호(87.1%)를, 공감은 비판(78.5%)을 가리켰다

실관람객 관람평 3,700건의 87.1%가 8~10점이었고 평균 8.81점은 네이버 표시값(8.8점)과 일치해 평점 표시 조작 징후는 없었다. 그러나 전체의 11.1%에 불과한 1~4점 관람평이 누적 공감의 78.5%를 차지했다. 1점 관람평의 건당 평균 공감(4,283회)은 10점(135회)의 31.8배였고, 공감 상위 100위 중 97건이 1~2점이었다. 네티즌 탭도 같은 방향이었다(1~2점이 건수 36.1%, 공감 62.4%). 평점을 남긴 집단과 공감을 누른 집단은 서로 다른 여론을 만들었고, 어느 한쪽 숫자로도 '여론'을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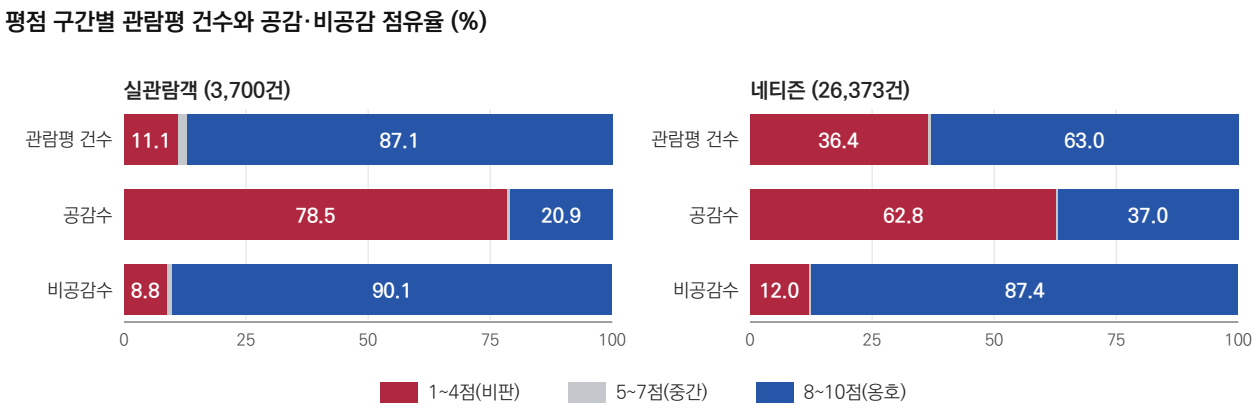


그림 1. 평점 구간별 관람평 건수와 공감·비공감 점유율

9월 25일 공감 '눈덩이'가 멈췄고, 1위 댓글 공감수는 급변했다

9월 24일 작성 저평점 관람평의 공감 중앙값은 18,268회였으나 25일 작성분부터 2,009회로 89% 급감했다. 관심 감소라면 완만한 곡선이 나와야 하므로, 이 '절벽'은 기본 정렬이 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바뀌었거나 상단이 초기 댓글로 고정돼 새 글이 노출 기회를 잃은 결과와 부합한다. 또 연구자가 9월 29일 22시 직접 확인한 공감 1위 관람평의 표시값 1,374,041건은 이튿날 11시경 5,400여 건으로 줄어 있었고, 몇 시간 뒤인 14시쯤 네이버가 긴급 조치로 5만 건으로 조정했다는 공식 보도가 나왔다. 이 값은 10월 10일 104,844건으로 복원됐다. 초대형 댓글을 제거해도 저평점의 공감 점유율은 70% 이상 유지됐다. 데이터는 변경의 '시점'과 '효과'를 보여줄 뿐 '주체'와 '이유'는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깎고 복원했는지는 네이버만 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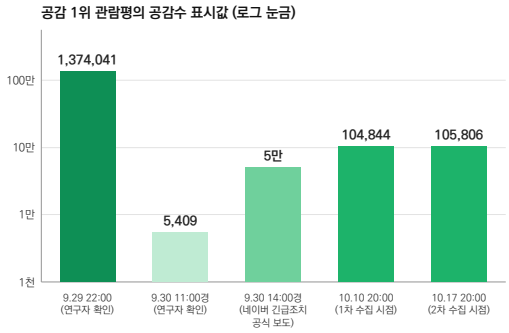


그림 2. 공감 1위 관람평의 공감수 표시값 변화

비판은 열흘 만에 꺼졌지만 관객은 300만 명을 넘었다

실관람객 탭 1점 비율은 개봉일 5.6%에서 9월 28일 35.2%로 치솟았다가 10월 5일 1.75%로 내려앉았다. 네티즌 탭은 10월 1일 저평점 61.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루 작성량이 10월 6일 1,838건에서 17일 142건으로 92.3% 줄었다. 비판의 전선은 인증이 필요한 실관람객 탭에서 인증이 없는 네티즌 탭으로 사흘 늦게 옮겨갔다. 반면 누적 관객은 10월 16일 314만 명(손익분기점 약 330만~370만)에 이르렀다. 댓글창의 우세는 문화시장의 우위를 뜻하지 않는다.

인접 관람평에 같은 숫자가 반복됐다.

10월 5일 실관람객 관람평 연속 6건의 공감수는 206·196·220·218·213·220회, 비공감수는 369~401회로 1점과 10점 리뷰를 가리지 않고 비슷했다. 네티즌 탭에서는 1점 관람평의 일평균 공감수와 10점 관람평의 일평균 비공감수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이는 개별 이용자가 본문을 읽고 누른 반응보다 화면에 노출된 목록 전체에 일괄 클릭한 결과와 더 부합한다. 다만 노출 조건이 같은 데서 비롯된 이용자 행태인지 자동화 봇인지는 내부 로그 없이 판별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조작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비판은 '역사적 사실성'을, 옹호는 '연기와 재미'를 말했다

실관람객 저평점 관람평의 40.0%는 왜곡·음모론·선동 등 사료적 사실성 문제를 제기했고, 고평점 관람평의 70.0%는 연기·배우(53.2%), 재미(33.3%) 등 작품성과 관람 경험을 말했다. 두 집단은 같은 질문에 반대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다.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은 비판도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허구를 사실처럼 위장해 대중을 오도한다'는 사실성 논증이었다. 실미도 가처분(2004라439)과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2017헌마416)이 보여주듯 창작의 자유와 사실 검증은 모순이 아니라 공론장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

해외 플랫폼은 규칙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줬다

Steam은 리뷰 폭격을 점수에서 배제하되 그 사실을 화면에 공시하고 이용자가 포함 재계산을 선택하게 하며, IMDb는 대체 산식 적용을 고지한다. 미국 FTC 소비자 리뷰 규칙(2024), 일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 EU DSA, 영국 DMCC법은 각각 정렬 기준 공개와 부정 리뷰 대응을 요구한다. 플랫폼의 설명책임은 ①사전 공개된 규칙 ②규칙 적용 사실의 고지 ③원자료 접근과 다른 보기 방식 ④변경 사유·범위의 사후 설명으로 평가해야 한다. 네이버의 조치는 이 네 기준 모두에서 설명이 비어 있다.

이 연구의 기여

방법론적 공개 화면의 네 시점 기록과 두 차례 독립 수집 자료(26,506건·13,035건)를 비교해, 플랫폼이 공개하지 않는 집계·정렬 변화를 언제, 어느 댓글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까지 외부에서 추적했다. 9월 25일 공감 증가세의 단절, 공감 1위 댓글 표시값의 254분의 1 감소, 정정 이후에도 공감의 70% 이상이 비판 리뷰에 남은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내부 자료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했다.

이론적 평점 8.8점과 비판 댓글의 137만 공감이 각각 '민심'의 근거로 제시되던 상황에서, 여론을 평점·공감·노출로 분해해 같은 게시판에 반대 방향의 여론이 공존했음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성을 둘러싼 문화전쟁이 이제는 그 역사에 대한 여론을 플랫폼이 어떻게 집계하고 보여주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책적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공개 자료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플랫폼의 개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정책 과제로 전환했다. 해외 플랫폼 여덟 사례와 일본 타베로그 판결, 국내 관련 법제를 비교해 집계·정렬 기준 공개, 변경 사실 고지, 독립 검증이라는 제도 기준을 도출했고, 특정 주장의 옳고 그름을 선언하기보다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의혹 제기에 머물렀던 사안을 공개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어 기록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내부 자료 없이는 확정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도 확인된 사실과 남은 과제를 구분해 제시한 것은, 플랫폼이 여론의 집계와 노출을 좌우하는 시대에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묻는 연구의 역할이기도 하다.

결론: 여론의 옳고 그름보다 여론을 보여주는 방식의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는 어느 쪽 여론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플랫폼이 여론을 어떻게 집계하고 보여주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①네이버의 평점 구간별 감산 통계와 정렬 변경 영향의 독립 검증(단기) ②현대사 사실 대조표 표준화와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단·중기) ③정렬 기준 변경 사전 고시제, 대규모 집계 보정 공시제, 연구자 데이터 접근권 등 설명책임 제도화(중기) ④사료 기반 창작 지원과 문화 비평 생태계 조성(장기)을 제안한다. 평점은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공감은 비판에 압도적으로 쏠렸다. 이 간극이 실제 여론인지 집계·노출 방식의 산물인지 가리려면, 플랫폼이 여론을 어떻게 집계하고 보여주는지부터 공개되어야 한다.

‘평점’은 영화를 옹호했고, ‘공감’은 비판에 집중됐다

영화《암살자(들)》 네이버 관람평 데이터로 본 플랫폼 시대의 문화전쟁과 설명책임

2026년 11월 3일 · 여의도연구원 전유원 부연구위원

핵심 메시지

1. 네이버 영화 평점 게시판에서 평점은 영화를 전폭적으로 옹호한 반면(실관람객 관람평의 87.1%가 8~10점), 공감(좋아요) 반응은 비판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실관람객 전체 공감의 78.5%가 1~4점 관람평에 집중). 그러나 플랫폼은 여론의 가시성을 좌우하는 정렬 및 집계 기준 변경의 구체적 규칙과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2. 1점 리뷰와 10점 리뷰를 가리지 않고 인접 관람평에 유사한 반응 수치가 반복되는 등 일괄 클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검증의 초점은 ‘어느 진영이 평점 테러를 주도했는가’라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플랫폼이 여론 표시 방식을 변경할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가’라는 설명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비판 담론에서 가장 폭넓은 대중적 공감을 획득한 것은 원색적 비난이 아닌 ‘역사적 사실성과 창작의 경계’에 관한 논증이었으나, 이 반응 에너지는 불과 열흘 만에 급감했다. 단기적인 온라인 분노 반응을 제도적인 사실 검증, 비평, 국가기억 아카이브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역사 해석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론장 교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요약

2026년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문세광 외 배후설과 유신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을 촉발했다. 게다가 논쟁은 영화의 사료적 사실성을 넘어 네이버의 평점·공감 집계 알고리즘과 기본 정렬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본 연구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작성된 네이버 관람평 데이터를 두 차례(1차 10월 10일 26,506건, 2차 10월 17일 13,035건) 수집하여, ‘표명된 의견(평점)’, ‘표시된 반응(공감·비공감)’, ‘노출된 의견(정렬·표시값)’의 3차원 프레임워크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의 구조적 균열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 핵심 사실을 규명한다.

첫째, 평점 지표와 공감 반응 간의 큰 차이가 확인됐다. 실관람객 관람평 건수의 87.1%가 8~10점의 고평점이었으나, 누적 공감의 78.5%는 1~4점 저평점에 집중됐다. 특히 1점 관람평의 건당 평균 공감(4,283회)은 10점 관람평(135회)의 31.8배에 달했다. 그러나 개봉 초기 저평점에 몰리던 '공감 눈덩이(snowball)' 현상은 9월 25일 작성분부터 중앙값이 89% 급감하며 급격한 단절을 보였고, 공감 1위 관람평의 화면 표시값은 약 137만 건에서 5천 건, 이후 10만 건으로 급변했다.

둘째, 비판 여론의 확산은 강렬했으나 수명은 매우 짧았다. 저평점 작성 비중은 티켓 인증을 거치는 '실관람객' 탭에서 9월 28~29일(정점 35.2%) 급증한 뒤 하루 만에 하향 안정화됐으며, 무인증 '네티즌' 탭에서는 10월 1일(정점 61.0%)에 도달한 뒤 열흘 만에 급격히 소진됐다. 반면 영화의 누적 관객은 논란 속에서도 300만 명을 돌파하여, 댓글 공론장의 우세가 문화시장의 실질적 영향력과 직결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10월 이후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관람평에서도 인접 게시물 간 유사한 공감·비공감 수치가 반복 관찰되는 등 일괄 클릭의 정황이 확인됐으나, 공개 데이터만으로는 조직적 조작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

셋째, 비판 집단과 옹호 집단은 완전히 분리된 평가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저평점 관람평의 40.0%는 '역사왜곡, 음모론, 선동' 등 사료적 사실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고평점 관람평의 70.0%는 '배우의 연기, 몰입감, 관람 경험'을 칭찬했다. 두 집단은 동일한 사안에 상반된 판단을 내리기보다 애초에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영화 평점 갈등이 역사 해석의 대립을 넘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적 여론 표시 권력에 대한 제도적 불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명**했다. 즉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에 머물 수 있는 '여론'을 평점·공감·노출의 세 측면으로 분해해, 같은 사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여론이 공존했음을 실증하고, '조작 여부'라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설명책임'이라는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전환**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플랫폼의 집계·정렬 변경에 대한 독립 검증, 현대사 사실 대조표 및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리뷰 플랫폼 설명책임의 제도화, 지속적인 문화 비평·생산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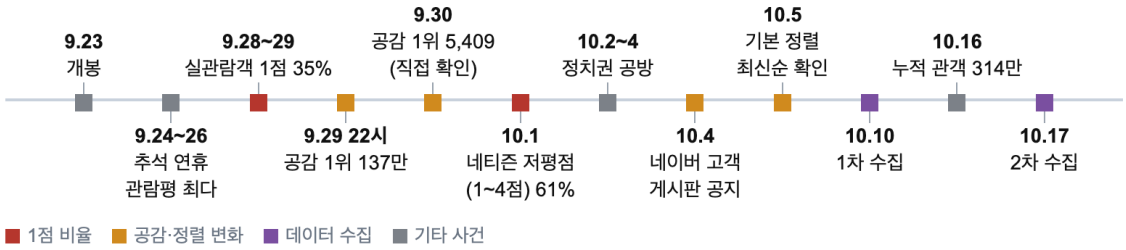
[표 1] 주요 발견별 핵심 지표

구분	핵심 지표	주요 발견 내용 및 통계 수치	공론장적 의미
발견 1	실관람객 저평점(1~4점) 건수 비중	11.1% (고평점 8~10점 비중 87.1%)	평점을 작성하는 능동적 관객층에서는 영화 옹호가 절대적 우세.
	실관람객 저평점 공감 점유율	78.5% (1점 건당 공감이 10점의 31.8배)	공감을 누르는 관람평 소비 대중 사이에서는 비판 담론이 압도적 우세.
발견 2	공감 1위 관람평 표시값의 사후 변동	1,374,041회 → 5,409회 → 104,844회	플랫폼 내부의 재집계 및 표시 로직 수정이 실재함을 입증.
	9.24 대비 9.25 저평점 공감 중앙값	18,268회 → 2,009회 (89% 급감 단절)	초기 댓글의 상단 고착 또는 기본 정렬 변경(공감순→최신순)에 따른 후발 댓글의 '공감 눈덩이 효과' 차단.
발견 3	실관람객 1점 비율 추이 및 정점	5.6%(9.23) → 35.2%(9.28) → 0~3%(10월)	인증 탭의 비판 유입은 이틀간 폭증 후 급격히 소멸.
	네티즌 탭 하루 작성 건수 변동	1,838건(10.6) → 142건(10.17)	비판 반응 에너지의 지속성은 열흘 안팎에 불과함.
	관람 인증 여부에 따른 평점 격차	10.6~10.16 실관람객-네티즌 평균 약 1.7점	인증 장벽 유무에 따라 표출되는 여론의 결이 구조적으로 분리.
발견 4	10.5 작성 리뷰(실관람객) 연속 수치	공감: 206, 196, 220... / 비공감: 369, 353, 401...	내용 및 평점 차이와 무관하게 인접 게시물에 유사 수치 반복.
발견 5	평가 기준의 이원화	저평점: 역사·사실성 40.0% / 고평점: 작품성 70.0%	사실성을 묻는 비판과 감성·재미를 칭찬하는 옹호의 층위 충돌.

Ⅰ 서론: 평점 게시판은 왜 전장이 됐는가

1.1. 문제 제기

[그림 1] 사건 타임라인



2026년 9월 29일 밤, 네이버의 한 관람평에는 137만 건의 공감이 달려 있었다. 약 13 시간 뒤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같은 관람평의 공감은 5천여 건이었다. 숫자가 바뀐 것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플랫폼이 평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한 편의 상업영화 평점 게시판이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디지털 공론장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6년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허진호 감독, 유해진·박해일·

이민호 주연)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다. 영화는 저격범 문세광 외에 또 다른 총격 주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등 유신 정권 권력기관의 공작 개입 가능성을 서사화했다. 개봉 즉시 역사적 사실 왜곡 논란이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졌고, 보수 성향 단체와 유족 측은 강력한 상영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영화는 개봉 20일 만에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허장원, 2026).

[표 2] 일자별 주요 전개와 지표 변동

일자	주요 전개 및 공론장 사건	평점 및 공감 지표 변동	플랫폼 및 수집 관련 조치
9.23	영화《암살자(들)》전국 극장 개봉	실관람객 1점 비중 5.6% 출발	기본 정렬 공감순 노출 추정
9.24~26	추석 연휴 관람평 최다 작성 구간	초기 저평점에 공감 집중 형성	9.25 작성분부터 공감 중앙값 89% 급감
9.28~29	온라인 역사 왜곡 비판 담론 급확산	실관람객 1점 비중 35.2% 정점 기록	9.29 22시 공감 1위 댓글 137만 건 포착
9.30	포털 공지 및 수치 조정 보도	실관람객 1점 비중 12.0%로 하향 안정	1위 댓글 표시값 5,409건으로 급감
10.1	네티즌 탭 비판 여론 결집	네티즌 탭 저평점(1~4점) 61% 정점	네이버, 매크로 의심자 경찰 수사 의뢰
10.2~4	정치권의 여론 왜곡 및 조작 공방 심화	진영 간 평점 맞불(1점 vs 10점) 극대화	기본 정렬 최신순 전환 확인
10.5	인접 관람평 유사 수치 반복 구간 발생	실관람객 평점 10점 비중 89.5% 회복	양 진영 일괄 반응 패턴 감지
10.10	비판 여론 소진 및 관객 지속 유입	네티즌 1점 비중 14%대로 감소	1차 데이터 수집 (26,506건) 완료
10.16	누적 관객 314만 명 돌파 (손익분기점 370만)	신규 관람평 일 10~200건대로 급감	온라인 비판 담론의 사실상 소진
10.17	최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마감	실관람객 평균 8.8점 / 네티즌 8.1점	2차 데이터 수집 (13,035건) 완료

논쟁의 실질적 전장이 극장 스크린을 넘어 포털 사이트의 평점 게시판으로 급속히 이전됐다는 점은 본 사태의 핵심이다. 네이버의 실관람객 평점은 8점대 후반의 고평가를 유지한 반면, 무인증 네티즌 평점은 한때 2점대까지 폭락했다. 1점을 부여한 특정 관람평에는 137만 건 이상의 공감이 쏟아졌다. 네이버는 '관람평 및 공감·비공감 수의 중복 반영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공지했고(네이버 영화 고객센터, 2026), 매크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김민주, 2026). 이에 대해 여당은 '조직적 평점 테러'로, 야당은 '제2의 드루킹 사태에 준하는 선택적 여론 통제'로 규정하며 정면충돌했다(윤혜원, 2026; 신정인, 2026).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 정치권과 대중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게 된 원인은 온라인 공론장이 지닌 복합성에 있다. 문화 소비자 평가 공간이던 평점 게시판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이념 대립의 무대로 치환됐고, 이는 다시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조작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불신으로 비화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의 역사적 사료 검증, 디지털 여론의 대표성,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공적 과제가 뒤엉켰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각자의 진영 논리에 유리한 파편적 숫자만을 취사선택했을 뿐, 평점, 공감, 노출 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네이버 관람평 전수 데이터를 통해 여론 불일치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플랫폼 공론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데이터로 규명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며 다음 5대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1. 실관람객 평점 평균 8.8점은 이 영화에 대한 지배적 여론을 대변하는가? 평점을 부여한 집단과 공감을 누른 집단은 동일한 모집단인가?
2. 네이버의 정렬 기준 및 집계 변경 의혹을 데이터가 뒷받침하는가? 변경이 실재했다면 언제, 어떠한 댓글에,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가?
3. 비판 여론은 언제 결집하여 어디로 이동했으며, 관람 인증 여부에 따라 어떠한 시계열적 차이를 보였는가?
4. 공감·비공감 수치를 자발적 민심의 지표로 신뢰할 수 있는가? 10월 이후 포착된 규칙적 반응 수치는 인간 이용자의 개별 행위인가?
5. 비판 담론과 옹호 담론은 무엇을 기준으로 충돌했는가? 두 진영은 동일한 쟁점에 상반된 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의 평가를 수행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한 뒤, 분석 결과를 문화전쟁(culture war)과 플랫폼 공론장 연구의 틀로 해석하고, 문화 담론 전략과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첫 번째 질문 중 공감 반응의 방향을 제한적으로 교차검증(triangulation)한다. 첫 번째 질문은 네이버라는 하나의 플랫폼의 특수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같은 사건을 다룬 언론사 유튜브 댓글이라는 독립 자료로 교차검증한다[부록 A 참조].

1.3. 연구의 입장

본 분석은 두 가지 전제를 배제한다. **첫째**, 영화가 취한 역사적 해석의 진위 여부를 학문적으로 최종 판정하지 않는다. 이는 학계의 사료 검증 영역이다. **둘째**, 플랫폼 기업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관측된 데이터는 변경의 '시점'과 '결과적 패턴'을 보여줄 뿐, '의사결정의 주체'와 '내부 동기'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는 **첫째**, 평점·공감·노출이라는 세 가지 여론 지표가 상호 모순되는 방향으로 분화된 과정을 실증적으로 복원하고, **둘째**, 이 사건을 단순한 영화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규칙 위에서 전개된 한국형 문화전쟁의 구조적 표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1.4. 기존의 문제 제기를 넘어: 이 연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암살자(들)》의 평점 논란은 일반 시민들 및 정치권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주요 쟁점이 알려졌다. '조직적 평점 테러'와 '제2의 드루킹'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고, 네이버의 공지와 고소, 공감수의 급격한 변동도 보도됐다.

그러나 평점과 공감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 지표이며, 공개 화면에 나타난 수치의 변화만으로는 그 원인과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개별 수치를 전체 여론으로 해석하거나 집계 변화 자체를 조작의 증거로 받아들일 경우, 실제 여론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이버 영화 관람평을 독립적으로 수집하고, 평점·공감·노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논란을 넘어 실제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떤 제도적 문제가 남아 있는지를 구분했다. 나아가 새로운 실증적 발견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설명책임과 독립 검증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제시했다.

🔗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발견

첫째, 같은 게시판에서 평점은 옹호, 공감은 비판에 집중되는 역설적인 여론 구조를 실증했다. 기존에는 실관람객 평점 8.8점과 비판 댓글에 쌓인 137만 공감이 각각 민심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연구는 평점의 87%가 옹호 측에, 공감의 78%가 비판 측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어떤 의견이 먼저 보이는가는 플랫폼의 정렬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까지 분석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수치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 다른 참여 방식으로 형성된 숫자를 하나의 '여론'으로 해석하면 실제 여론의 구조를 놓칠 수 있다는 발견이다. 기존 논의가 각 숫자의 의미를 주장했다면, 이 연구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와 차이를 밝혀냈다.

둘째, 공감수가 급변했다는 사실을 넘어 언제, 어느 댓글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했다. 9월 25일 작성분부터 비판 리뷰의 공감 증가세가 급격히 약화된 현상, 9월 29일 밤에서 30일 아침 사이 공감 1위 댓글의 표시값이 254분의 1로 줄어든 기록을 확인했다. 특히 공감수의 큰 폭 하향 조정이 초대형 댓글에 집중된 반면, 1점 리뷰의 공감 중앙값은 오히려 네 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공감수 변화가 모든 댓글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계 정정 이후에도 전체 공감의 70% 이상이 비판 리뷰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공감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비판 여론이 인위적으로 사라졌다는 의혹 모두를 실제 관찰된 수치에 비추어 재검토할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상에서 수집 가능한 공개 화면의 네 시점 기록을 비교하고 두 차례에 걸쳐 관람평을 독립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변화의 원인이나 플랫폼 내부의 처리 방식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검증 가능한 범위와 한계도 구분했다.

셋째,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의혹을 '플랫폼의 개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정책 과제로 발전시켰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누가 어떤 의도로 집계나 정렬에 관여했는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제도적 질문이 남는다. 플랫폼이 평점과 공감수를 정정하거나 노출 순서를 변경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가? 외부에서 그 변경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해외 플랫폼 여덟 사례와 일본 타베로그 판결, 국내 관련 법제를 비교해 집계·정렬 기준 공개, 변경 사실 고지, 독립 검증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미 제기된 의혹을 반복하는 대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기존 의혹에서 주목하지 않은 두 가지 발견

이 연구는 평점 논란을 넘어 문화적 갈등의 작동 방식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비판과 옹호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판 측은 역사적 사실성과 왜곡 여부를, 옹호 측은 배우의 연기와 작품의 재미를 주로 이야기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린 이유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평가 기준 자체의 차이에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온라인 비판 여론의 강도와 실제 관람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판 참여가 열흘 사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 관객은 31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댓글창의 우세가 문화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실제 관람 행동의 우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기여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논의를 발전시켰다.

방법론적으로, 플랫폼이 공개하지 않는 집계·정렬 변화의 흔적을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로 추적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했다.

이론적으로, 역사적 사실성을 둘러싼 문화전쟁이 이제는 그 역사에 대한 여론을 플랫폼이 어떻게 집계하고 보여주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책적으로, 특정 주장의 옳고 그름을 선언하기보다 플랫폼의 설명책임과 독립 검증이라는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가치는 이미 알려진 논란을 다시 설명한 데 있지 않다. 의혹으로 남아 있던 문제를 측정 가능한 사실로 구체화하고, 기존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를 실제 정책 과제로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의혹과 문제 제기가 논쟁의 출발점이었다면, 이 연구는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다.

1.5. 한국적 맥락: 사건을 읽는 다섯 가지 배경

본 평점 갈등이 사회적 폭발력을 획득한 이면에는 한국 사회 고유의 구조적 맥락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검색 시장을 구글이 약 90% 이상 과점하는 상황에서도(StatCounter, 2026), 한국은 자국 플랫폼인 네이버가 2026년 상반기 기준 64.4%의 압도적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는 드문 시장이다(김대영,2026). 네이버는 단순 검색을 넘어 뉴스, 쇼핑, 영화 평점을 포괄하는 지배적 포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네이버 평점 게시판의 정렬 규칙과 노출 우선순위는 대중 여론 형성의 향방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다.

둘째, 네이버 영화 평점 서비스는 예매 내역을 인증해야만 작성이 가능한 '실관람객' 탭과 별도 인증 없이 아이디만으로 작성 가능한 '네티즌' 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참여 비용과 진입 장벽이 현격히 다른 두 탭의 평점이 극단적으로 벌어지자, 진영별로 유리한 탭의 수치를 아전인수격으로 대변하는 공론장 분열이 심화됐다.

셋째,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공식 사법 판결이 확정된 현대사의 핵심 분기점이다. 피해자인 육영수 여사는 보수 진영의 핵심 상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직계 유족이 생존해 있는 현실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 따라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권력 배후설을 영상화한 것은 예술적 상상력을 넘어 사법적 사실관계 및 유족의 인격권 및 명예와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넷째, 2018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 뉴스 댓글 공감 순위를 8,840만 회 이상(김재환, 2021) 왜곡했던 사법적 트라우마가 대중의 집단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대중과 정치권은 포털의 공감 수치 급변이나 순위 조정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여론 조작의 기만적 개입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극히 강하다.

다섯째, 한국의 문화전쟁은 영화 속 역사 재현 논쟁에서 플랫폼의 여론 매개 규칙으로 확산됐다. 예를 들어,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군함도》(2017), 《서울의 봄》(2023) 등 현대사 소재 영화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가 되어 왔다. 《서울의 봄》과 《암살자(들)》은 같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작품들이며, 또한 흥미롭게도 《택시운전사》와 《암살자(들)》은 1974년 문세광이 탑승했던 택시의 실존 소유주 김사복이라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공유한다(다만 제작사는 김사복과의 연결성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선욱,2017; 김승필,2026). 과거의 갈등이 영화의 서사 구조 자체에 머물렀다면, 《암살자(들)》 사태는 역사적 평가의 주도권 싸움이 포털의 집계 알고리즘과 정렬 기준의 투명성이라는 기술정치적(technopolitical) 쟁점으로 전이됐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 불투명성과 여론 왜곡 위험이 공론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국내외 주요 사례는 [부록 B]에서 상세히 다룬다.

II | 이론적 배경: 평점 논란을 해석하는 여섯 가지 관점

《암살자(들)》의 평점 논란은 문화전쟁, 온라인 여론 형성, 집단행동, 플랫폼 운영, 역사적 사실과 창작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이 장에서는 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학, 계산사회과학, 플랫폼 연구, 역사학의 주요 이론을 여섯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과 연결한다.

2.1. 문화전쟁: 역사 해석의 권위 투쟁

문화전쟁(culture war)은 개별 정책이나 사건을 넘어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권위를 둘러싼 세계관의 충돌이다(Hunter, 1991). 이러한 갈등은 교육·예술·언론 등 문화 영역에서 반복되며(Hartman, 2015), 집단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석도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된다(Kaufmann, 2024; Mounk, 2023). 이 관점에서 《암살자(들)》 논란의 핵심은 영화의 완성도만이 아니다. 1974년 사건을 누가, 어떤 근거와 권위로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평점 게시판은 이러한 역사인식의 대립이 숫자로 드러나는 공간이 됐다.

2.2. 공론장과 집단 동원: 리뷰 폭격과 침묵의 나선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시민의 합리적 토론을 강조하지만(Habermas, 1962/1989), 실제 온라인 평점 공간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집단행동이 나타난다. 특정 작품에 저평점을 집중시키는 '리뷰 폭격(review bombing)'과 이에 대응하는 '역폭격(counter-bombing)'이 대표적이다(Cantone et al., 2025). 여기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수 의견으로 보이는 입장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의견 표명을 주저할 수 있다(Noelle-Neumann, 1974). 온라인에서는 공감·추천 수치가 다수 의견을 판단하는 단서로 작용한다(Porten-Cheé & Eilders, 2020). 따라서 평점과 공감 수는 의견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다른 이용자의 판단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호다.

2.3. 사회적 영향 편향: 누적 우위와 알고리즘 편향

사회적 영향 편향(social influence bias)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이후 이용자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초기의 긍정적 평가가 후속 평가를 증가시키고(Muchnik et al., 2013), 타인의 선택이 공개될수록 인기의 쏠림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Salganik et al., 2006). 정렬 방식도 중요하다. 국내 포털 뉴스 댓글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댓글의 정렬 방식이 이용자의 댓글 작성과 공감·비공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23). 인기순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면 이미 주목받은 의견이 추가 반응을 얻는 누적 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Shmargad & Klar, 2020).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실제 노출·정렬 기록이 필요하다. 공감 수는 독립적인 찬성 의견의 총합이 아니라, 초기 반응과 노출 순서의 영향을 받는 수치다. 따라서 공감 수의 크기 그 자체를 국민 여론의 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집계 패턴 역시 조작 여부를 검토할 단서는 되지만, 그 자체가 조작의 증거는 아니다(Luca & Zervas, 2016).

2.4. 플랫폼 설명책임: 가시성의 정치학

플랫폼은 단순히 이용자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의견의 순서와 가시성을 바꾼다(Gillespie, 2014, 2018). 따라서 플랫폼의 책임은 개별 게시물의 삭제나 유지 여부를 넘어 집계·정렬·노출 규칙의 설계와 운영 과정까지 포함한다(Douek, 2022).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실제로 여론을 조작했는가라는 의혹과, 네이버의 집계·정렬 기준이 충분히 투명했는가라는 제도적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는 증거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고, 후자는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의 책임이다.

2.5. 연결행동과 계산 선전의 경계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떤 주최자의 지시가 없이도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이라고 한다(Bennett & Segerberg, 2012). 반면 봇·매크로·조직적 계정 활동을 이용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계산된 선전/선동(computational propaganda)'도 존재한다(Woolley & Howard, 2018). 두 현상은 겉으로 유사한 참여 급증이나 반복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댓글의 공감·비공감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반응 수치의 패턴을 이용해 조직적 투표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Jeong et al., 2020).

이번 데이터에서 9월 28~29일 실관람객 탭의 반응 급증은 역사 왜곡 논란에 따른 자발적 참여 가능성과 연결된다. 반면 10월 이후 관찰된 공감·비공감의 동반 변화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현상이다. 다만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시간대별 활동, 계정별 반응, 반복 패턴과 플랫폼 내부 기록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2.6. 역사 영화의 재현과 예술적 자유의 한계

역사 영화는 실제 사건을 압축하고 인물을 재구성하며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해석한다. 따라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하나, 2022; Rosenstone, 1995; White, 1988). 그러나 창작의 자유가 역사적 주장의 검증 가능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역사 서술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창작된 설정은 구분할 수 있다(Evans, 1997/2018; Lorenz, 1998). 이 구분은 제IV장 발견 5에서 저평점·고평점 관람평의 평가 기준을 비교하는 틀로 쓴다.

2.7. 소결: 3차원 여론 분석 모델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온라인 평점 게시판의 여론을 세 가지 독립된 층위로 구조화한다.

1. **표명된 의견:** 이용자가 어떤 평점과 관람평을 남겼는가.
2. **표시된 반응:** 다른 이용자가 어떤 관람평에 공감하거나 반대했는가.
3. **노출된 의견:** 플랫폼이 어떤 관람평을 먼저, 더 많이 보여주었는가.

첫째, 이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남긴 영화 평가 점수인 '표명된 의견(평점·본문)'으로, 실관람객 87.1%가 고평점을 부여하여 영화 옹호 방향으로 수렴했다.

둘째, 게시판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개별 관람평에 표시한 지지 또는 반대인 '표시된 반응(공감·비공감)'으로, 전체 공감의 78.5%가 저평점에 집중되어 영화 비판 방향으로 수렴했다.

셋째,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어떤 관람평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는가의 문제인 '노출된 의견(정렬·표시값)'으로, 9월 25일 전후로 추정되는 노출 방식 변화 및 9월 29~30일의 수치 대규모 정정 등 플랫폼의 기술적 개입이 집중된 층위다.
온라인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층위가 어떠한 불일치를 일으켰는지 교차 분석해야 한다.

[그림 2] 세 측면의 여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1. 표명된 의견 (평점·관람평 — 누가 어떤 평가를 남겼는가)	2. 표시된 반응 (공감·비공감 — 다른 이용자가 어디에 반응했는가)	3. 노출된 의견 (정렬·표시값 — 플랫폼이 무엇을 먼저 보여주는가)
실관람객 관람평의 87%가 옹호, 평균 8.8점	공감의 78%가 1~4점 리뷰에 집중, 1위 댓글 137만 공감	9.25 후발 댓글 노출 단절(상단 고착·정렬 변경), 137만→5천 감산 정정(이후 5만→10만)
→ 옹호로 기울었다	→ 비판으로 기울었다 (눈덩이 ↔ 가시성 상호작용)	→ 규칙과 사유는 비공개

어느 한 측면의 숫자로 '여론'을 말할 수 없다.

III | 데이터와 방법: 두 개의 탭, 두 번의 수집, 세 측위의 변수

3.1. 네이버 관람평의 구조

네이버 영화 관람평은 예매 내역 인증이 요구되는 '실관람객' 탭과 포털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네티즌'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두 탭 모두 1점에서 10점까지의 평점, 텍스트 본문, 작성일자, 공감수, 비공감수가 표기된다. 공감·비공감은 로그인 계정당 1회 클릭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중복 차단 알고리즘은 비공개 상태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두 탭이 서로 다른 '참여 조건'을 가진다는 점이다. 실관람객 탭은 돈과 시간을 들여 극장에 간 사람의 평가를, 네티즌 탭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네티즌 탭에서 실제 관람자를 가려낼 방법은 없다. 따라서 두 탭의 차이를 모두 '관람 여부'로 설명할 수는 없다.

3.2. 수집 개요와 절차

수집 도구와 절차. 브라우저 자동화 프레임워크인 Playwright를 사용하여 정렬 기준을 '최신순'으로 고정한 뒤 관람평 전수를 스크래핑했다. 수집은 2026년 10월 10일(1차)과 10월 17일(2차)에 진행됐다(네이버 영화, 2026). 각 관람평에 대해 평점, 텍스트 본문, 작성일, 작성자 마스킹 ID(앞 4자리), 공감수, 비공감수, 페이지 내 인접 위치 데이터를 확보했다.

분석 데이터셋의 구성. 관람평의 평점·본문·작성일은 누적되는 자료이므로 두 차례 수집본을 합쳐 쓸 수 있지만, 공감·비공감은 수집 시점의 표시값이므로 합칠 수 없다. 이 원칙에 따라 분석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실관람객은 2차 수집본(3,700건, 9.23~10.17)을 단일 기준으로 쓰며, 공감·비공감은 10월 17일 표시값을 기준으로 한다. 네티즌은 10월 1~9일 작성분은 1차(1차 수집은 10월 10일 20시에 이뤄져 당일 작성분이 완전하지 않음), 10월 10~17일 작성분은 2차 수집본에서 가져와 10월 1~17일 통합본을 만들었다. 따라서 네티즌 통합본의 공감·비공감은 작성일 10월 10일 이전은 10월 10일 표시값, 그 이후는 10월 17일 표시값이다. 1차 실관람객 수집본(3,438건)은 네이버 표시 평균과의 대조(검증)에만 쓴다. 발견 2는 예외적으로 9월 29일·30일 현장 확인, 10월 10일, 10월 17일 네 시점의 표시값을 비교하는 분석이며 본문에 그 사실을 명시했다.

[표 3] 수집 개요와 절차

탭 구분	수집 차수	수집 건수	작성일 범위	데이터 특성 및 비고
실관람객	1차 (10.10)	3,438건	9.23 ~ 10.10	네이버 화면 표시 인원(3,460명)과 0.6% 오차, 평균 8.81점 일치.
네티즌	1차 (10.10)	23,068건	10.1 ~ 10.10	플랫폼 수집 상한선(5,000페이지) 제한으로 9월분 미포함.
실관람객	2차 (10.17)	3,700건	9.23 ~ 10.17	1차와 중복 제거 후 누적된 최종 실관람객 데이터셋.
네티즌	2차 (10.17)	9,335건	10.5 ~ 10.17	10월 중순 시계열 흐름 파악을 위한 데이터셋.
통합 분석본	실관람객	3,700건	9.23 ~ 10.17	반응값(공감·비공감)은 10월 17일 기준 단일 확정.
통합 분석본	네티즌	26,373건	10.1 ~ 10.17	10.1~9 작성분은 10.10 기준, 10.10~17 작성분은 10.17 기준 반영.

3.3. 분류 기준

평점은 세 구간으로 나눴다. 1~4점은 '비판(부정)', 8~10점은 '옹호(긍정)', 5~7점은 '중간'이다. 평점은 비판적 부정(1~4점), 옹호적 긍정(8~10점), 중립적 중간(5~7점)의 3단계로 범주화했다. 전체 데이터에서 중간 구간(5~7점)은 실관람객 1.81%, 네티즌 0.69%(2차 수집본 기준, 통합본 기준 0.57%)에 불과하여 여론이 완전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음을 확인했다. 네티즌 관람평의 90.25%가 1점(19.61%) 또는 10점(70.64%)에 집중됐으며, 실관람객 탭에서도 1점(9.70%)과 10점(80.65%)이 전체의 90.35%를 차지했다. 영화의 완성도를 세밀하게 평가하기보다 논쟁 속에서 찬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표 4] 두 탭 모두 평점은 양극에만 있다

분류 기준 평점 구간	실관람객 건수 (3,700건)	실관람객 비율 (%)	네티즌 건수 (9,335건)	네티즌 비율 (%)
10점	2,984건	80.65%	6,594건	70.64%
8~9점	240건	6.49%	616건	6.60%
5~7점	67건	1.81%	64건	0.69%
2~4점	50건	1.35%	230건	2.46%
1점	359건	9.70%	1,831건	19.61%
합계	**3,700건**	**100.00%**	**9,335건**	**100.00%**

주. 실관람객 및 네티즌 모두 2차 수집본(10.17 수집, 실관람객 3,700건·네티즌 9,335건) 기준. 네티즌 통합 분석본(26,373건)의 구간별 분포는 [표 8] 참조.

키워드 분석의 규칙. 본문에 특정 표현이 포함되는지를 정규식 규칙으로 판별했다. 띄어쓰기 변형('역사왜곡'과 '역사 왜곡')과 어미 변형('재미있다'·'재밌다'·'재미있었다'·'재밌었다')은 하나로 통합했다. 한 댓글이 여러 키워드에 동시에 잡힐 수 있으므로 키워드별 비율의 합은 100%를 넘는다. 표현의 포함 여부만 판별하고 의견의 방향은 판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이 들어간 옹호 리뷰의 대부분이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부정문이라는 사실은 표본 100건을 연구자가 직접 읽어 확인했다.

[표 5] 키워드 분석 규칙

키워드 범주	포함 표현	비고
역사왜곡	역사왜곡, 역사 왜곡, 왜곡	옹호 리뷰에서는 부정문이 다수
음모론	음모론, 음모	-
선동	선동	-
좌파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	-
북한	북한, 김정일, 김일성	-
연기·배우	연기, 배우, 박해일, 유해진, 이민호	배우 실명은 별도 집계
재미	재미, 재밌, 재미있	-
몰입	몰입	-
기자·언론	기자, 언론, 언론 탄압	-

본문 분석은 두 방식으로 했다. 첫째는 핵심 표현의 포함 여부를 규칙으로 판별하는 키워드 분석이고, 둘째는 댓글 하나를 하나의 주제로 배정하는 주제 분류다.

주제 분류 및 분석 기준. 2차 수집 관람평(실관람객 3,700건, 네티즌 9,335건)을 내용에 따라 핵심 담론 주제별로 분류했다(세부 분류 결과는 4.5절 참조). 주제 분류는 사전에 정의한 분류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론을 참고했다(Krippendorff, 2018). 먼저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300건씩 추출해 내용을 검토하고, 주제별 분류 기준과 대표 사례를 정리한 코드북(분류 지침서)을 작성했다**[부록 C 참조]**. 이후 전체 관람평을 분류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연구자가 재검토해 분류 기준에 반영했다. 주제별 집계에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 **주요 주제 분류:** 관람평 한 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하나만 배정했다. 여러 주제가 등장하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비중이 같으면 첫 문장의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주제별 비율의 합은 100%다.
- **중복 주제 분류:** 하나의 관람평에 여러 주제가 나타나면 해당 주제를 모두 집계했다. 예를 들어 역사왜곡과 정치적 의도를 함께 언급한 관람평은 두 주제에 모두 포함했다. 따라서 주제별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을 수 있다.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해 관람평의 중심 주제뿐 아니라 여러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 양상도 살펴봤다.

- **분석 대상의 제외 기준.** 스포일러로 본문이 가려진 관람평 126건과 본문이 5자 미만인 짧은 관람평은 '스포일러 가림 및 초단문 관람평'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대한 주제 분석에서 제외했다.
- **공감·비공감 분석.** 이용자의 반응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첫째, 평점 구간별 공감·비공감 점유율을 비교했다. 둘째, 작성일별 공감수의 중앙값을 산출해 반응의 차이를 살펴봤다. 일부 관람평에 공감수가 지나치게 집중돼 평균값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중앙값을 사용했다. 셋째, 게시 순서상 인접한 관람평 사이의 공감·비공감 수치 차이를 비교해 반응의 분포와 특징을 분석했다.

3.4. 데이터의 한계

이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수집된 데이터는 시각 정보 부재로 인해 분 단위 동시 접속이나 매크로 타임스탬프 분석이 불가능하며, 작성자 식별 제한으로 동일 계정의 다중 반복 작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수집 시점 표시값에 한정되어 삭제된 관람평 내역이나 내부 원시 로그 확인이 불가하고, 집계 알고리즘 비공개로 인해 공감 수치를 순수 순방문자 수로 환산할 수 없다. 아울러 플랫폼 수집 상한선에 따른 네티즌 9월분 결측으로 인해 비인증 탭의 개봉 초기 추이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표 6] 데이터의 한계와 그에 따른 해석의 제약

한계	내용	해석의 제약
시각 정보 없음	작성일만 있고 시·분 정보가 없다	시간대별 급증 패턴, 클릭 시각의 동시성은 분석할 수 없다
작성자 식별 불가	작성자 ID는 앞 4자만 노출된다	동일인의 반복 작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표시값 기준	수집 시점의 '표시값'이며, 삭제·숨김 처리된 댓글과 수치의 사후 변경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플랫폼 내부 조작 여부는 직접 검증할 수 없고, 간접 징후만 읽을 수 있다
집계 규칙 미공개	공감·비공감은 로그인 계정당 1회로 알려져 있으나 집계 규칙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수를 고유 이용자 수로 해석할 수 없다
누적 수치	공감 수치는 수집 시점까지의 누적이라, 일찍 쓴 리뷰일수록 반응이 많이 쌓였다	날짜별 공감 비교는 노출 기간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네티즌 9월분 미수집	수집 상한 때문에 네티즌 탭의 9월 23~30일분은 없다	네티즌 탭의 개봉 초기 양상은 알 수 없다
비교군 없음	다른 영화의 관람평 데이터와 비교하지 않았다	관찰된 패턴이 이 영화에 고유한지 일반적인지 확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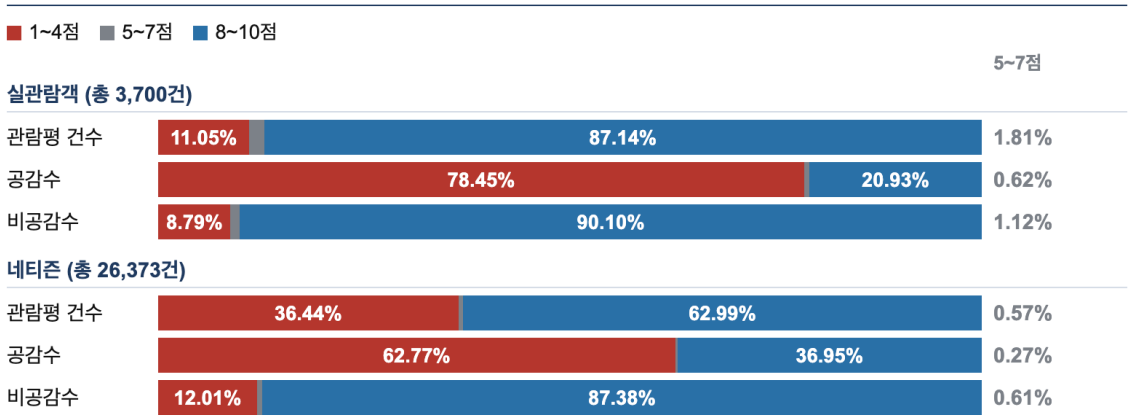
Ⅳ | 분석 결과

4.1. 발견 1. 평점은 영화 옹호(87%)에, 공감(좋아요) 반응은 비판(78%)으로 양극화됐다

실관람객 탭 분석 결과, 평점을 부여한 이용자와 공감을 누른 대중의 태도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실관람객 관람평 3,700건 중 8~10점 긍정 평가는 87.14%에 달했고, 1~4점 부정 평가는 11.05%에 그쳤다. 1차 수집의 평균 평점 8.81점은 네이버 표시값(8.8점)과 완전히 부합하여, 평점 자체의 표시 조작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감 점유율을 분석하면 구조가 전면적으로 전도된다. 전체 관람평의 11.05%에 불과한 저평점(1~4점) 관람평이 전체 누적 공감의 78.45%를 독식했다. 반면 87.14%를 차지한 고평점(8~10점) 관람평의 공감 점유율은 20.93%에 머물렀다. 비공감은 반대로 90.10%가 고평점 관람평에 집중됐다.

[그림 3] 집단·평점 구간별 관람평 건수와 반응 점유율



주: 막대는 각 지표의 평점 구간별 점유율(합계 100%). 수치는 [부록.표 A] 기준.

건당 평균 반응 강도에서 이 격차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실관람객 1점 관람평은 1건당 평균 4,282.95회의 공감을 획득한 반면, 10점 관람평은 평균 134.75회에 불과해 무려 31.8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비공감은 반대로 10점 관람평이 건당 474.36회, 1점 관람평이 364.47회를 기록했다.

공감 상위 순위를 추출했을 때의 편중은 절대적이다. 실관람객 공감 상위 10위와 50위는 100% 1~2점 저평점 관람평이었으며, 상위 100위로 확장해도 97건이 1~2점이었다. 9~10점 고평점 관람평은 상위 100위 내에 단 한 건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는 영화에 만족한 다수의 관객이 높은 평점을 남겼지만,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추천을 누른 이용자층은 영화의 역사적 묘사에 분노한 비판 집단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7] 공감 순위 구간별 평점대 분포

공감 순위 구간	1~2점 저평점 관람평	3~8점 중간 평점 관람평	9~10점 고평점 관람평
상위 1~10위	10건 (100.0%)	0건 (0.0%)	0건 (0.0%)
상위 1~50위	50건 (100.0%)	0건 (0.0%)	0건 (0.0%)
상위 1~100위	97건 (97.0%)	3건 (3.0%)	0건 (0.0%)

네티즌 탭에서도 낮은 평점에 공감이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10월 1~17일 통합본에서 1~2점 관람평은 전체의 36.1%였지만 누적 공감의 62.4%를 차지했다. 반면 9~10점 관람평은 전체의 61.8%였으나 누적 공감 비중은 36.3%에 그쳤다. 관람평 한 건당 공감 중앙값도 1~4점은 32건, 8~10점은 10건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이는 공감의 집중이 일부 초대형 관람평에 의해서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낮은 평점의 관람평 전반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표 8] 네티즌 관람평의 평점 구간별 공감 비중(10.1~10.17 작성분 26,373건)

구분	1~4점	5~7점	8~10점	전체
관람평 건수	9,611	150	16,612	26,373
건수 비율	36.44%	0.57%	62.99%	100%
공감수	303,208	1,322	178,479	483,009
공감 점유율	62.77%	0.27%	36.95%	100%
비공감수	78,529	4,004	571,307	653,840
비공감 점유율	12.01%	0.61%	87.38%	100%
건당 공감 중앙값	32	7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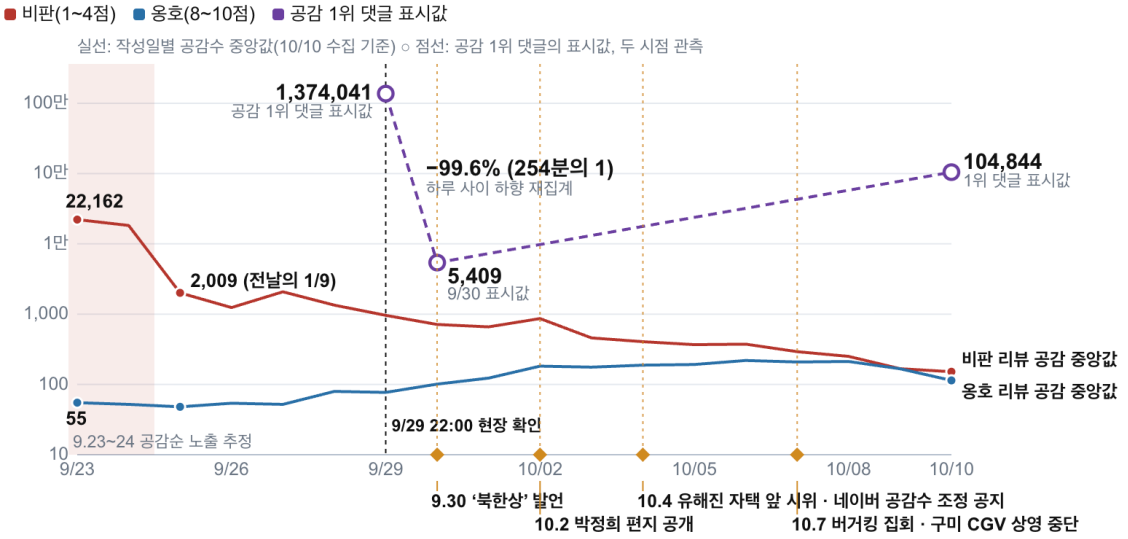
종합하면, 영화에 대한 점수는 최상위 평점(10점 만점에 약 8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들의 공감 반응은 부정적 평점을(1~4점) 표시한 댓글에 집중됐다. 이는 영화의 평점 공간이 단순한 작품 평가를 넘어 역사 해석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평점을 남긴 이용자와 공감을 누른 이용자가 서로 다른 집단인지, 조직적인 참여가 있었는지는 집계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4.2. 발견 2. 9월 25일(개봉 3일차) 공감 중앙값이 89% 급감했고, 1위 표시는 다음 날 254분의 1로 축소됐다

개봉 초기 극단적인 공감 쏠림. 10월 10일 수집 기준 공감 상위 10개 관람평은 모두 개봉 사흘 차인 9월 23~25일에 집중 작성됐다. 1위 댓글의 누적 공감은 104,844건, 2위는 81,700건에 달했다. 같은 9월 23일 작성분끼리 비교하면 저평점 관람평의 공감 중앙값은 22,162건, 10점 관람평은 55건으로 약 400배 차이가 났다.

[그림 4] 1점 리뷰의 공감 '눈덩이'는 개봉 사흘째부터 멈췄고, 1위 댓글의 표시값은 열흘 사이 13분의 1로 줄었다

실관람객 탭, 작성일별 공감수 중앙값(실선)과 공감 1위 댓글의 표시값(점선, 9월 29일 현장 확인 → 9월 30일 → 10월 10일 수집)



주: 실선은 각 날짜에 작성된 댓글들이 10월 10일 1차 수집 시점까지 누적한 공감수의 중앙값. 로그 눈금이므로 한 칸 위는 10배다. 9월 23~24일 비판 리뷰 표본은 각 16건. 점선의 9월 29일 값은 연구자가 당일 22시 네이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1위 댓글 표시값이며, 10월 10일 값은 수집 데이터의 최댓값("좌파식 역사 왜곡, 돈 아깝다..." 9.24 작성 리뷰).

통계적 단절('절벽') 확인. 9월 25일 작성분을 기점으로 통계적 단절이 확인된다. 9월 24일 작성된 저평점 관람평의 공감 중앙값은 18,268회였으나, 9월 25일 작성분에서는 2,009회로 하루 만에 89.0% 급감했다. 이후 저평점 공감 중앙값은 10월 초 수백 회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극단적 낙차는 관심도 감소에 따른 자연 감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기본 정렬이 '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바뀌어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상단에 머물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다. 혹은 **공감순 정렬이 유지된 채 상단이 9월 23~24일 댓글로 고정되어, 이후 작성된 글이 처음부터 노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두 설명 모두 9월 25일의 단절과 부합하며, 정렬 변경이 외부에서 확인된 시점은 10월 5일(표2)뿐이다.

[그림 5] 동일 댓글의 공감 표시값 급락

공감 1위 댓글(twin****, 2026.09.24 작성)의 네이버 화면 표시값, 두 시점 캡처



주.비공감도 22,639 → 242로 함께 줄었다.

같은 댓글, 다른 표시값. 연구자는 9월 29일 22시 같은 페이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댓글에 대한 표시값의 물리적 수정이 현장 확인을 통해 명백히 포착됐다. 9월 29일 22시 확인된 공감 1위 관람평("좌파식 역사 왜곡, 돈 아깝다..."/평점 1점)의 공감수는 1,374,041건이었다. 그러나 약 13시간 후인 9월 30일 11시 동일 댓글의 공감수는

5,409건으로 무려 99.6%(-1,368,632건, 254분의 1) 축소 표시됐다. 비공감 역시 22,639건에서 242건으로 함께 축소됐다. 이후 10월 10일 수집 시점에는 104,844건으로 다시 상향 표기됐다. 이 발견은 이 연구에서 유일하게 서로 다른 시점의 표시값을 비교하는 분석이다(III.3.2 참조).

이 변화는 언론 보도와 일치한다. 네이버는 '일부 관람평이 중복 등록되거나 공감·비공감 수가 중복 집계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공지했고, 9월 29일 137만이 넘던 공감수는 조치 이후 9월 30일 최종 5만여 건으로 수정됐으며(김재형, 2026), 1차 데이터 수집 시점인 10월 10일 기준 10만여 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공감 1위 관람평의 시점별 표시값

관측 및 확인 시점	공감수 표시값	비공감수 표시값	자료 성격 및 관측 환경
9월 29일 22:00	1,374,041회	22,639회	연구자 화면 직접 확인 및 원본 캡처
9월 30일 11:00	5,409회	242회	네이버 오류 정정 조치 직후 화면 기록
10월 10일 20:00	104,844회	10,650회	1차 웹 자동화 스크래핑 데이터셋
10월 17일 20:00	105,806회	10,984회	2차 웹 자동화 스크래핑 최종 데이터셋

이러한 하향 조정은 최상위 초대형 댓글에 집중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1위 관람평을 포함한 극단적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상한을 통제하더라도, 저평점 관람평의 공감 점유율은 여전히 70%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표 10] 극단값 처리 방식별 저평점 공감 점유율

분석 데이터셋 기준	상위 1% 공감수를 99백분위 값으로 윈저화 (Winsorized)	공감 최상위 5개 관람평 완전 제외
9.29 수집본	78.3%	74.5%
10.10 수집본	69.8%	76.2%

주. 윈저화(Winsorization): 이상치로 인한 분석 왜곡을 막기 위해 전체 데이터 개수(샘플 크기)를 유지한 채, 최댓값과 최솟값 주변의 극단적인 값을 특정 범위의 정상값으로 대체하여 평탄화하는 기법.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것을 종합하면 세 가지다. ① 개봉 첫 이틀에 쌓인 공감은 '눈덩이'였다. 사회적 영향 편향(Muchnik et al., 2013), 즉 앞선 공감이 뒤의 공감을 부르는 효과와 모양이 같다. ② 9월 25일 작성분부터 그 '눈덩이'가 멈췄다. 정렬이 최신순으로 바뀌었거나, 공감순 상단이 초기 댓글로 고정됐거나, 어느 쪽이든 새 글이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잃은 결과와 부합한다. 자연 감쇠라면 이렇게 가파른 단절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이 나와야 한다. ③ 9월 29~30일 사이 동일 댓글의 표시값이 바뀌었다. 이는 작성일별 공감 격차와는 다른 문제로, 이미 게시된 수치 자체가 조정된 사례다.

약 137만 공감이 하루 사이 약 5천(이후 5만여 건 공지, 10월 10일 기준 10만여 건)으로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차감된 공감수가 모두 실제 시민 각각의 공감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정정 이후 남은 10만여 건의 공감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 수집된 데이터는 변경의 '시점'과 '효과'를 보여줄 뿐, 변경의 '주체'와 '이유'는 보여주지 않는다. 137만 공감이라는 숫자는 단일 이용자들의 독립된 지지 의사가 아니라 매크로 반복 클릭이나 시스템 세션 중복 집계에 의해 팽창된 수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를 5,409건(언론 공지 기준 약 5만 건)으로 대폭 감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필터링 알고리즘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나아가 이후 10만 건 이상으로 재상승한 수치가 플랫폼의 추가 보정(복원) 결과인지 정정 이후 유입된 신규 클릭의 누적분인지조차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변경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다른 영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전에도 이런 변경이 있었는지는 네이버만 답할 수 있다.**

[표 11] 공감수 표시값 변경에 대한 가설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

가능한 설명	확인이 필요한 자료	데이터와의 부합
자연 감쇠(개봉 첫 주 관심이 가장 높고, 먼저 올라온 댓글이 가장 오래 노출됨)	다른 영화의 작성일별 공감 곡선	낮음. 하루 사이 9분의 1로 떨어지는 '절벽'을 설명하지 못함
노출 구조 변화(공감순→최신순 전환 또는 초기 댓글의 상단 고착)	정렬 변경의 결정 일시, 내부 검토 문서	높음. 9.24와 9.25 사이의 단절과 일치
중복 집계 오류의 수정	집계 로직·오류 발생 기간·정정 내역	네이버 공지와 일치. 다만 정정 규모가 초대형 댓글에 집중된 이유는 설명 필요
반복 클릭 또는 어뷰징 탐지 결과의 반영	비정상 반응 판정 기준·제외 수치	네이버의 경찰 고소와 일치. 다만 어느 방향의 클릭이 얼마나 제외됐는지 미공개

4.3. 발견 3. 비판은 실관람객 탭에서 9월 말, 네티즌 탭에서 10월 초에 집중됐 열흘 만에 소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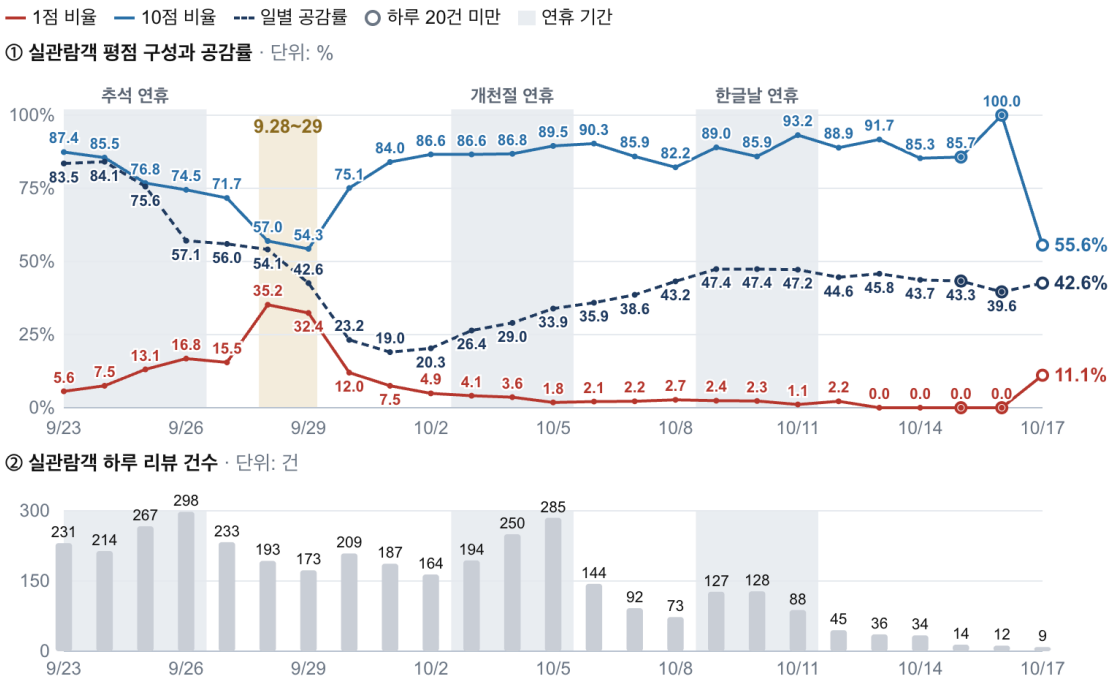
비판 여론의 확산 경로는 뚜렷한 시계열적 전이 패턴을 나타냈다.

실관람객 탭. 인증 기반의 실관람객 탭에서는 9월 28~29일 주말에 비판 여론이 단기 폭발했다. 개봉일 5.63%이던 1점 작성 비율은 9월 28일 35.23%, 29일 32.37%로 6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점 비율은 87.45%에서 54.34%로 급락했다. 그러나 이 비판 러시는 오래가지 못했다. 9월 30일 10점 비율은 75.12%로 반등했고, 10월 5일에는 89.47%에 도달하며 평상시 패턴을 회복했다. 1점 비율은 10월 5일 1.75%로 추락했고, 10월 12일 이후에는 대부분 0%였다(하루 작성 건수 20건 미만인 날은 해석에서 제외).

극장 흥행. 관람평 작성은 빠르게 줄었지만 실제 영화 관람은 이어졌다. 하루 관람평 건수는 추석 연휴인 9월 24~26일에 가장 많았고(최대 298건), 10월 5일 다시 285건을 기록한 뒤 급격히 감소했다. 10월 중순에는 하루 10건 안팎에 그쳤다. 반면 누적 관객은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증가해 10월 16일 약 314만 명에 이르렀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누적 관객 수는 334만 명(영화진흥위원회, 2026), 손익분기점은 약 330~370만(매체에 따라 다양)). 온라인에서 관람평을 작성하는 참여 규모와 실제 극장 관람 규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6] 9월 28~29일, 실관람객 1점이 여섯 배 상승 후 하루 만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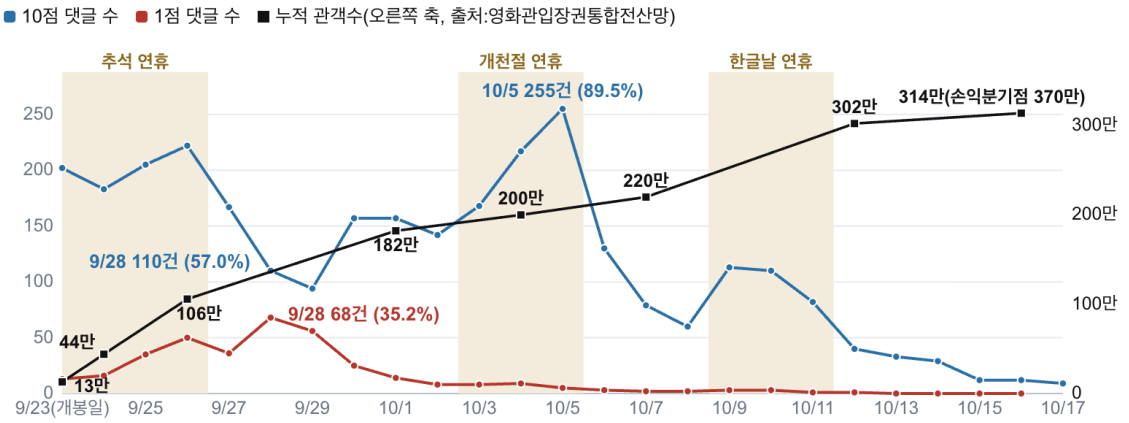


주: 실관람객 1점 비율은 9.23 5.6%에서 9.28 35.2%로 치솟았고, 9.30에 12.0%로 내려온 뒤 10월에는 0~3%대에 머물렀다. 같은 시기 일별 공감률은 84%에서 19%로 떨어졌다. 즉 초기 리뷰는 공감을, 10월 리뷰는 비공감을 더 많이 받았다. 관람주 인증이 필요한 실관람객 평점에서도 이틀간 1점이 몰렸다. 같은 시점에 반응의 방향도 바뀌었다. 외부 이슈나 집단적 관심이 특정 날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원인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9월 28일 작성된 저평점 관람평에서는 “후반부 졸다 왔음”, “보는 내내 기분 나쁜 영화”처럼 실제 관람 경험을 언급한 표현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시기 저평점 관람평 중 일부가 영화 관람 경험에 근거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논란을 접한 뒤 직접 영화를 확인한 관객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람 경험에 관한 서술만으로 관람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9월 28~29일의 저평점 급등을 특정 집단의 조직적 참여나 논란에 따른 관람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관람객 탭에서 확인되는 것은 비판 여론의 단기 집중과 빠른 감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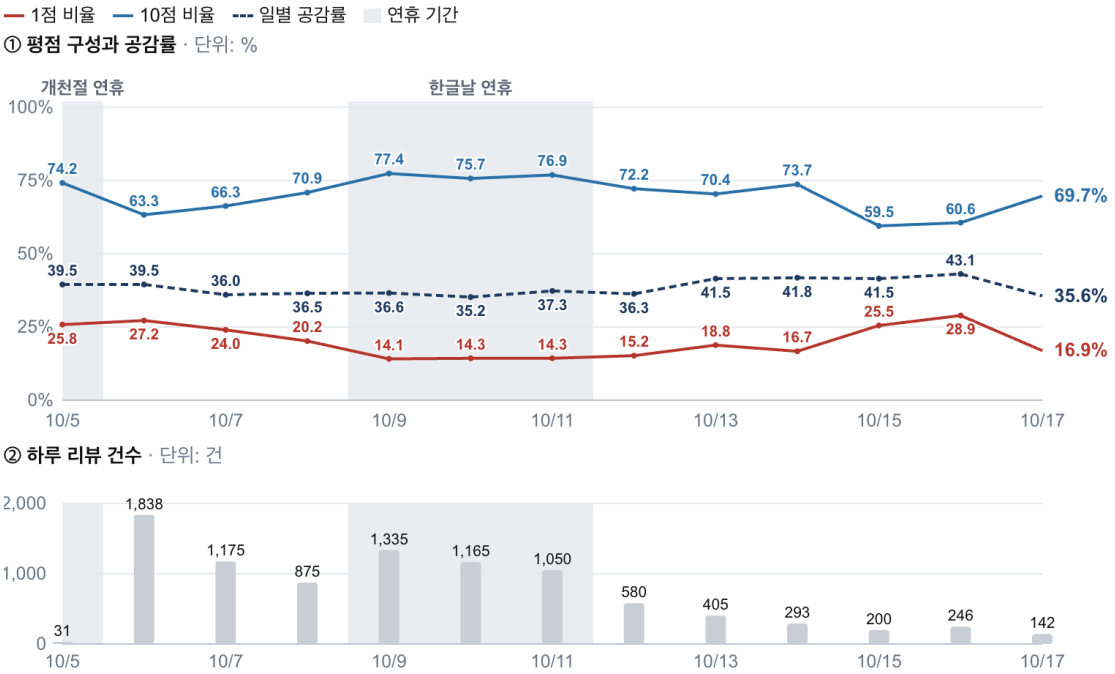
네티즌 탭. 무인증 네티즌 탭에서는 관측이 시작된 10월 1일에 비판 비중이 가장 높았다. 9월분이 수집되지 않아 실제 정점이 그 이전인지는 알 수 없다. 10월 1일 하루에만 3,477건의 네티즌 관람평이 작성됐고, 1~4점 저평점 비중은 61.0%를 차지했다. 이는 관람 인증이라는 비용 장벽을 마주한 비판층의 여론 참여가 무인증 탭으로 우회·전이됐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네티즌 탭의 열기 역시 급속도로 냉각되어, 10월 6일 1,838건이던 일 작성량은 10월 17일 142건으로 92.3% 급감했다.

[그림 7] 실관람객 일별 10점·1점 관람평 작성 건수와 누적 관객 추이



10월 중순의 저평점 비율 상승은 비판 참여의 재확산으로 보기 어렵다. 전체 관람평 작성 건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나타난 비율 변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네티즌 탭의 일별 공감률은 10월 1~2일 54%에서 10월 7일 이후 35~43%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저평점 비율의 등락과 별개로 관람평에 대한 이용자 반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네티즌 관람평의 평점 구성과 일별 작성 건수 추이



주.일별 공감률 = 그날 작성된 리뷰가 받은 공감 / (공감+비공감). 축이 둘이면 눈금을 임의로 맞춰 상관을 과장하기 쉽기 때문에 이중축 구성 대신 같은 날짜축을 공유하는 두 패널로 나눴다. 공감 수치는 수집 시점까지의 누적이라, 일찍 쓴 리뷰일수록 반응이 많이 쌓였다. 본 그래프는 동일 수집 시점(10.17 2차 수집) 기준으로 반응 누적 조건을 통제한 10.5~10.17 작성분(9,335건)을 제시했다(10.1~10.4를 포함한 전체 추이는 [그림 9] 참조). 네티즌 리뷰는 10.06 하루에만 1,838건이 몰렸고, 이날 1점 비율은 27.2%였다. 1점 비율은 10.09~10.11에 14%대로 내려갔다가 10.15~10.16에 25~29%로 다시 올랐다. 일별 공감률은 35~43%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네티즌 평점은 실관람객보다 1점 비율의 기본 수준이 훨씬 높고,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리뷰 유입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패턴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비교. 실관람객 탭과 네티즌 탭을 비교하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시점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관람객 탭은 9월 28~29일에 저평점 비율이 급등한 반면, 네티즌 탭은 10월 1일에 비판 비율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두 탭 모두 저평점 비율과 작성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시차는 비판 여론의 중심이 관람 인증을 거치는 실관람객 탭에서 별도의 관람 인증이 필요 없는 네티즌 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두 탭의 작성자가 실제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결과는 동일한 이용자 집단의 이동을 입증하기보다, 두 참여 공간에서 비판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이 달랐다는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9] 비판의 전선은 실관람객 탭에서 네티즌 탭으로 사흘 늦게 옮겨갔다

작성일별 1점 관람평 비율(%)



주. 10월 17일 실관람객 수집본(3,700건) 및 10월 1~17일 네티즌 통합본(26,373건). 작성일별 평점 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는 9월 네티즌 자료 미확보를 의미함. 네티즌 탭의 9월 작성분은 플랫폼의 관람평 수집 상한 제한으로 확보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함.

같은 기간 같은 영화를 평가했지만, 네티즌 탭의 평점은 실관람객 탭보다 대체로 낮았다. 두 집단의 자료가 겹치는 10월 6~16일을 비교하면, 실관람객의 일평균 평점은 9.5~10.0점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네티즌 평점은 7.1~8.5점 사이를 오르내렸으며, 1점 비율도 날마다 실관람객보다 약 12~29%p 높았다. 10월 17일 당일 작성분의 평균 평점은 각각 8.11점과 8.07점으로 비슷해졌다(누적 평균은 8.8점·8.1점, 표2).

4.4 발견 4. 인접 관람평에 유사 수치가 반복되는 등 일괄 클릭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로 다른 관람평에 공감·비공감 수치 반복. 통상적인 온라인 게시판의 추천 분포는 극소수의 글이 대다수의 반응을 점유하는 긴 꼬리(Long-tail) 형태를 띤다. 개봉 초기 데이터는 이와 일치했다. 그러나 10월 5일 전후 실관람객 탭에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균일 분포가 관측됐다. 게시 순서가 가까운 관람평들이 서로 다른 내용과 평점을 담고 있음에도 공감·비공감 수치가 비슷하게 반복된 것이다.

최신순 정렬 상태에서 인접한 관람평들의 공감 및 비공감 수치가 마치 판에 박은 듯 일정하게 반복됐다. 10월 5일 작성된 실관람객 관람평 연속 6건의 공감수는 206회, 196회, 220회, 218회, 213회, 220회로 중앙값 대비 편차가 10% 이내에 묶여 있었다. 비공감수 역시 369회, 353회, 401회, 399회, 387회, 392회로 일정한 대역을 형성했다. 1점 비판 리뷰와 10점 칭찬 리뷰가 나란히 게시되어 있음에도 반응 수치가 평평하게 이어졌다.

이러한 규칙성은 해당 날짜 관람평 269건(1차 수집 기준; 2차 최종 수집 기준 285건)을 순서대로 배열한 결과에서도 관찰된다. 관람평에 표시된 공감수와 비공감수는 일부 구간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함께 변동했다. 서로 다른 관람평에 유사한 규모의 반응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인접 관람평의 반응 수치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클릭을 입증할 수는 없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글은 노출 기간과 이용자 접근 조건이 유사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해당 영화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났는지, 다른 영화의 관람평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2] 인접 관람평 공감 및 비공감 수치(최신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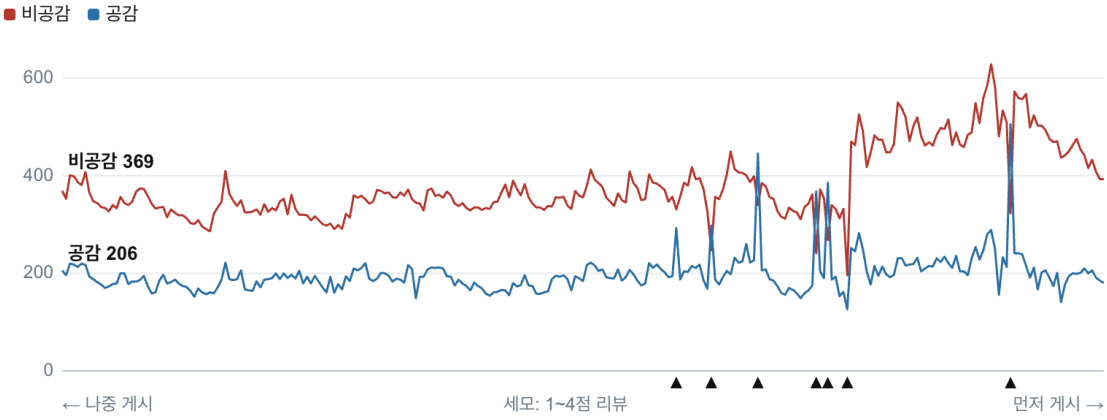
게시 순서	관람평 ID	평점	공감수 (회)	비공감수 (회)	본문 핵심 내용 및 논조
1번 게시물	answ****	10점	206회	369회	배우들 연기력 진짜 미쳤네요... 박해일 유해진 믿보배
2번 게시물	skyt****	10점	196회	353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함
3번 게시물	kimb****	1점	220회	401회	근거 없는 소설을 왜 사실처럼 만드나? 명백한 역사왜곡
4번 게시물	chld****	10점	218회	399회	몰입감 최고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좋아하셨어요
5번 게시물	leej****	10점	213회	387회	허진호 감독 연출력 탄탄하네요. 웰메이드 영화 강추
6번 게시물	park****	1점	220회	392회	유족 가슴에 대못 박는 선동 영화. 절대 보지 마세요

1점 공감과 10점 비공감이 비슷한 흐름. 더욱이 네티즌 탭에서는 1점 공감수와 10점 비공감수가 쌍둥이처럼 동행하는 추세가 관찰됐다.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1점 관람평의 일평균 공감수가 45.1건에서 33.7건, 54.3건, 31.3건으로 출렁일 때, 10점 관람평의 일평균 비공감수 역시 41.6건에서 31.6건, 52.7건, 31.2건으로 거의 오차 없이 동일한 궤적을 그렸다.

이 결과는 서로 반대되는 평가에 대한 반응이 시기별로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노출 조건, 관람평 작성 시점, 반응 누적 기간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움직임 자체를 동일 이용자나 자동화된 계정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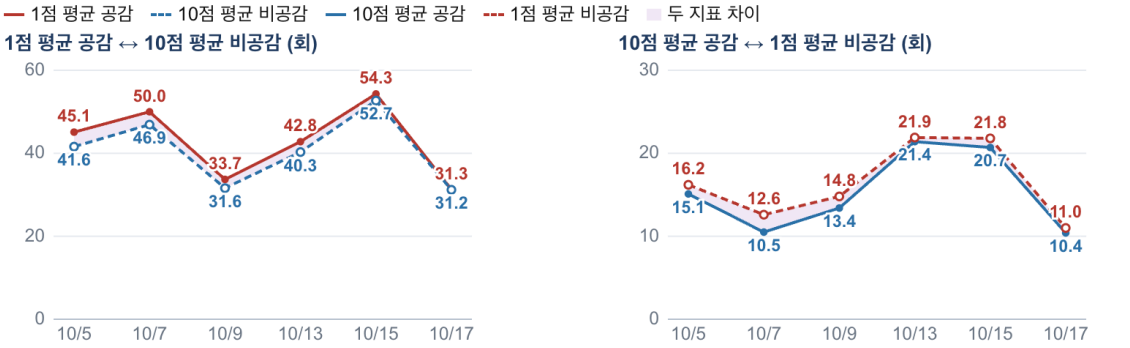
[그림 10] 인접 관람평에서 유사한 공감·비공감 수치가 반복

실관람객 탭, 10월 5일 작성 댓글 269건의 공감·비공감 수 (게시 순서대로)



주. 가로축은 최신순 페이지 상의 순서(왼쪽이 더 나중 게시). 하루치 댓글 안에서 수치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진다. 세모 표시는 1~4점 리뷰로, 이웃한 10점 리뷰와 공감·비공감 수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림 11] 네티즌 관람평의 공감·비공감 반응 추이 비교



이러한 패턴은 개별 이용자가 본문을 읽고 누른 반응보다는, 한 화면에 노출된 관람평 목록 전체에 공감·비공감을 일괄 클릭(batch clicking)한 결과와 더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동일한 노출 인터페이스에 기인한 단순한 이용자 행태인지, 외부 자동화 봇에 의한 작업인지는 내부 로그 데이터 없이는 판별할 수 없다.

[표 13] 공감·비공감 반응 패턴의 해석과 검증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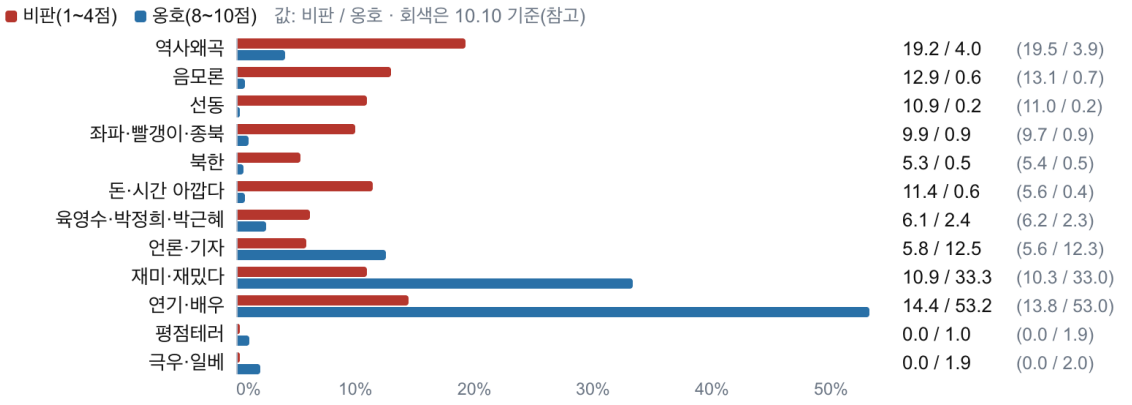
관찰된 통계적 이상 패턴	가능한 가설적 설명	확정을 위해 검증해야 할 비공개 로그
개봉 초기 초대형 공감 편중	사회적 영향 편향 및 정렬 누적 우위	분 단위 유입 트래픽 및 초기 클릭 IP 로그
인접 관람평 유사 수치 반복	페이지 단위 매크로 투표 혹은 일괄 클릭	버튼 클릭 발생 간격(ms) 및 브라우저 세션 정보
1점 공감과 10점 비공감의 동행	특정 진영의 기계적 반사 투표 동원	단일 유저 식별자별 투표 행태 매핑 데이터
공감 1위 댓글 254분의 1 축소	네이버의 어뷰징 감산 및 로직 오류 교정	감산 필터링 알고리즘 명세서 및 정정 작업 로그

4.5. 발견 5. 비판은 ‘역사적 사실성’을, 옹호는 ‘작품성과 관람 경험’을 말했다

관람평 텍스트 내용분석 결과, 양 진영은 동일한 영화에 대해 완전히 상이한 언어 체계를 구사했다. 키워드 분석에 따르면, 실관람객 저평점(1~4점) 관람평 395건 중 사료적 사실성 문제를 제기하는 어휘(왜곡, 음모론, 선동, 조작, 날조, 고증, 허구, 픽션, 소설)를 포함한 비율은 40.0%에 달했다. ‘역사왜곡’ 19.2%, ‘음모’ 12.9%, ‘선동’ 10.9% 순이었으며, ‘좌파·빨갱이·종북’ 등 정치적 낙인 표현도 9.9%를 차지했다. 반면 고평점(8~10점) 관람평 3,113건에서는 사실성 검증 관련 어휘가 9.2%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역사 왜곡이 아니라는 반박 맥락이었다. 대신 고평점은 ‘연기·배우’(53.2%), ‘재미·재밌다’(33.3%) 등 작품 완성도 및 관람 경험을 언급한 비율이 70.0%에 달했다.

[그림 12] 저평점은 역사적 사실성을, 고평점은 작품성과 관람 경험을 강조했다

실관람객 탭, 키워드를 포함한 리뷰 비율, % (2차 수집, 스포일러 가림 126건 제외: 비판 395건 · 옹호 3,113건)



주. 댓글 본문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 규칙에 따라 판별함. ‘좌파’에는 좌파·빨갱이·종북·좌빨, ‘북한’에는 북한·김정일·김일성을 포함함. 스포일러 가림 처리로 본문 확인이 불가능한 126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주제 분류(주요 주제 단일 배정 기준)에서도 동일한 분화가 확인된다. 실관람객 전체 관람평의 41.6%는 배우 연기력과 몰입감을 칭찬했고, 21.2%는 유신 시절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메시지를 높이 평가했으며, 14.8%는 추석 가족 동반 관람을 추천했다. 반면 역사 왜곡과 음모론을 비판한 관람평은 10.5%였으며, 나머지 11.9%는 기타 단문 감상 및 평점 논쟁 언급 등이었다.

실관람객 공감 상위 관람평을 질적으로 분석하면, 비판 담론이 대중적 지지를 얻은 핵심 동력은 단순 욕설이 아니라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여 대중을 오도한다’는 사실성 검증 논증(표 15)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옹호 측이 영화는 영화일 뿐 예술적 자유가 있다고 항변한 반면, 비판 측은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매체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라는 사료적 책임론으로 맞섰다.

[표 14] 실관람객 공감 상위 10개 댓글 10.17 표시값

순위	평점	본문	작성일	공감 (10.10)	비공감
1	1점	좌파식 역사 왜곡. 돈 아깝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자들은 욕하면서 나올 영화.	09.24	**105,806** (104,844)	10,984
2	1점	너무 실망적이다. 박정희가 본인 딸이있는데 본인 아내를 쏴죽였다? 그럼 박근혜는 그걸 몰랐을까? 박정희가 암살돼 죽기전까지 옆에서 보필했을까? 지금까지 박정희를 존경하며 살았을까? 생각을 해봐라 너무 스토리가 억까잖아… 아무리 독제라해도 본인 아내를 쏴죽였다? 하… 그만속자 좌파들의 정치와 소설에 그만좀 속자	09.23	82,469 (81,700)	7,247
3	1점	음모론을 사실처럼 만들면서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만듦 그게 선동이야.	09.24	76,531 (75,848)	5,461
4	1점	언론검열 탄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	09.23	70,129 (69,465)	4,748
5	1점	영화내용 집중도 안되고 졸리고 정치색 강합니다. 불호.	09.23	67,423 (66,800)	5,047
6	1점	2026년 최악의 영화.	09.25	37,755 (37,338)	1,854
7	1점	음. 8시 영화! 지금 막 보고 나옴. 개인적으로 다른 영화 추천! 시간 암살당했다!!	09.23	37,591 (37,217)	2,291
8	1점	나름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 시절부터 쭉 17년차 당원인 골수 좌파가 봐도 "이건 좀 ㅋㅋ;"싶었던 악의가 느껴졌던 영화. 참고로 감독인 허진호는 전라도 출생이다.	09.24	37,588 (37,241)	2,468
9	1점	한줄평 태극기가 부끄럽고 대한민국이 실망스럽다 인 내용 이게 너희가 말한 민주주의냐는 대사 그리고 태극기를 부끄러워하며 등돌리는 연출까지 그냥 빨갱이 영화임 심지어 2002년 이 암살 사건은 북한이 인정한 사건임 누가? 김정일이^^ 나는 태극기가 자랑스럽다 멸공!	09.24	37,549 (37,153)	2,053
10	1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ㅉㅉ.	09.24	37,239 (36,849)	2,072

주: 괄호 안은 10.10 수집 시점의 공감 표시값. 10월 10일 수집본에서도 동일.

네티즌 탭의 어휘에서는 플랫폼과 외부 환경을 겨냥한 단어들이 추가됐다. 네티즌 1점 리뷰에서는 '알바, 평점, 조작'(플랫폼 불신), '북한, 민족과 운명, 간첩'(체제 선전론) 등의 공격적 어휘가 급증했다. 관람 인증이 없는 공간일수록 비판의 초점이 영화 내부의 묘사에서 외부의 의혹으로 격화됐음을 알 수 있다.

4.6. 소결: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비판과 작품성에 대한 옹호는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두 집단의 평가가 단순한 찬반 대립을 넘어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저평점 관람평은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재현의 경계를 주로 문제 삼았고, 고평점 관람평은 배우의 연기, 몰입감, 작품의 메시지와 관람 경험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 하나의 평점 체계 안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우의 연기나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역사적 사실의 왜곡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특히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은 단순한 고증 오류를 넘어 작품의 신뢰성과 예술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평점 관람평에 전체 공감의 78.5%가 집중된 현상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취향의 차이를 넘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표 15] 네티즌 텝 평점 1점에는 '알바·조작', '북한·간첩'이 추가됐다

순위	10점 댓글 최다 등장 키워드 (총 6,594건)	주요 맥락 및 의미	1점 댓글 최다 등장 키워드 (총 1,831건)	주요 맥락 및 의미
1	영화 / 잘 만든 영화	"오랜만에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 "영화는 영화로 봐야"	역사왜곡 / 왜곡	"창작을 빙자한 악의적 역사 왜곡", "왜곡 멈춰라"
2	배우들 / 명연기	주·조연 및 카메오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 극찬	선동 / 쓰레기	"대중을 속이는 정치 선동 영화", "쓰레기 영화"
3	재밌게 / 시간가는줄	"2시간이 순삭",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봤다"	좌파 / 좌빨 / 빨갱이	영화 제작진·관람층에 대한 정치·이념적 비난
4	진실 / 언론 / 기자	독재 시대 참언론인들의 사명감과 진실 추적 과정에 감동	박정희 / 육영수 / 문세광	피해자(박정희·육영수)를 가해자처럼 묘사했다는 반발
5	몰입감 / 긴장감 / 연출	허진호 감독의 연출력과 극적 긴장감, 몰입도 호평	알바 / 평점 / 조작	"10점 댓글 알바 풀었다", "중국인·좌파 별점 조작"
6	논란 / 하도 / 궁금해서	"하도 논란이라 직접 보러 갔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북한 / 민족과운명 / 간첩	북한 체제 선전 영화 <민족과 운명> 표절·리메이크 주장
7	유해진 / 박해일 / 이민호	주연 3인방의 열연 칭찬 및 유해진 배우 응원 메시지	아깝다 / 1점도 / 돈	"1점도 아깝다", "시간과 돈이 아까운 최악의 졸작"
8	시대 / 독재 / 민주주의	유신 독재·언론 탄압의 공포와 현재 민주주의의 소중함	고인모독 / 유가족 / 자녀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고인 모독이자 패륜적 2차 가해"

V 논의: 평점·공감·노출이 충돌한 플랫폼 문화전쟁

5.1. 여론의 삼중 분열: 수치 독점의 허구성

실증 분석의 최대 함의는 동일한 플랫폼 내부에서 집계된 세 가지 지표가 완전히 다른 여론의 얼굴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평점 지표(평균 8.8점)는 영화가 광범위한 관객의 찬사를 받았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공감 지표의 78%가 저평점에 몰렸다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137만 건에 달했던 비판 공감수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영화를 규탄한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여론 왜곡이 될 수 있다. 공감수는 고유 이용자의 비례적 투표가 아니며, **초기 노출 우위와 일괄 클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누적 행동량**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네이버의 정렬 변경과 수치 감산 조치까지 개입하면서 이용자가 최종 목격한 여론의 풍경은 인위적으로 재단됐다. 공론장의 건강성은 특정 숫자의 우열을 가리는 데 있지 않다. 평점, 공감, 노출 알고리즘이 각각 어떠한 규칙에 의해 생산되고 매개되는지를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만 수치에 기반한 소모적인 의혹과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5.2. 역사 해석의 사법적 권위와 예술적 자유의 충돌

이 사건이 문화전쟁으로 확산된 근본적 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그 사실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적 가설의 충돌에 있다. 1974년 8·15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서 문세광은 북한·조총련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사형이 집행됐다. 사건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다. 영화 《암살자(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국가 권력의 조작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작품 전반에 걸쳐 암시한다.

비판 관람평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영화가 다루는 사건이 수백 년 전의 모호한 전설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관계자가 생존해 있는 근현대사의 사법적 사실이라는 점이 갈등을 폭발시켰다. 옹호 집단이 ‘픽션으로서의 재미와 완성도’를 주장할 때, 비판 집단은 ‘확정된 역사의 훼손’을 규탄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잣대가 부딪히면서 공론장은 합리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5.3. 반응의 단기 폭발과 영향력의 장기 지속성

시계열 분석이 규명한 또 다른 구조적 현실은 반응과 생산의 비대칭적 시간 구조다. 비판층의 공감 클릭과 저평점 참여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과 일주일여 동안 거세게 불타올랐으나, 10월 10일을 지나며 자연 소진됐다. 공유된 분노에 기반한 즉흥적 연결행동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치를 동원하지만 장기적인 문화적 파급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반면 영화는 수년간의 기획과 시나리오 집필, 자본 조달과 제작을 거쳐 극장과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콘텐츠이며, 상영 이후에도 314만 명 이상의 관객 뇌리에 지속적인 서사적 잔상을 남긴다. 온라인 댓글창에서 1점 폭격을 가하고 137만 공감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시장의 서사 주도권을 탈환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흘간의 분노로 축적된 문화생산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5.4. 사법 판례로 본 공론장의 경계: 창작의 자유와 사실 검증의 공존

역사 소재 창작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평가함에 있어 사법부의 확립된 판례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서울고등법원의 2005년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결정(2004라439)은 예술적 자유의 폭넓은 보장을 선언하면서도, 실존 인물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05).

법원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가 객관적 사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사료적 근거가 결여된 허구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인 양 대중에게 오인시키는 마케팅과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20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2017헌마416)은 국가 권력이 특정 정치적 견해나 역사 해석을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제하거나 공론장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중립성의 대원칙을 천명했다(헌법재판소, 2020).

[표 16] 주요 사법 판례가 공론장에 주는 시사점

주요 사법 판례	사법부가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	사법부가 허용 및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공론장에 주는 핵심 시사점
실미도 가처분 (서울고법 2004라439)	예술적 창작의 자유, 영화 상영금지의 엄격한 제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배상, 사실 오인을 유도하는 기만적 홍보 규제	창작의 자유는 사료적 사실 검증과 비판의 자유와 상호 양립해야 함
블랙리스트 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배제 금지, 문화예술 표현에 대한 국가 중립성	학술적 비판,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론, 공론장에서의 객관적 논증과 반박	사상 검열은 금지되나 자율적 비평과 사실성 입증 책임은 요구됨

두 판례가 가리키는 결론은 자명하다. 창작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에 따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허구적 상상력을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자유가 역사적 실증성을 묻는 대중과 학계의 비판으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비판 세력 역시 국가 권력을 동원한 상영 금지나 사상 검열을 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료와 실증적 논증을 통해 영화적 허구성을 공론장에서 반박해야 한다. 창작의 자유와 사실 검증은 적대적 모순 관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5.5. 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권력과 설명책임의 부재

네이버는 논란이 확산되자 중복 집계 오류 수정, 매크로 의심자 고소, 기본 정렬의 공감순에서 최신순 전환이라는 세 가지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개입은 어뷰징 방지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콘텐츠의 노출 순서를 바꾸고 표기 숫자를 수정하는 순간 그것은 중립적 기술 관리를 넘어 공론장의 질서를 물리적으로 재편하는 권력 행사가 된다.

네이버는 왜 특정 시점에 기본 정렬을 바꾸었는지, 어떠한 기술적 원인으로 특정 댓글에서 137만 건에 달하는 중복 집계 오류가 발생했고(오류가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를 5,409건(언론 공지 약 5만 건)으로 대폭 감산했는지, 그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 공감까지 일괄 삭제된 것은 아닌지 아직 명확한 사후 검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플랫폼이 여론을 매개하는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한, 공론장은 필연적으로 기술적 조작설과 정치적 불신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5.6 소결: 문화전쟁의 핵심은 반응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권위와 생산의 구조다

《암살자(들)》 논란은 단순한 영화 평점 갈등이 아니다.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문화적 충돌이 플랫폼을 통해 증폭되고, 다시 플랫폼의 책임과 문화산업의 생산 구조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평점과 공감, 노출은 서로 다른 여론을 보여주었다. 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높은 평점으로 나타났지만, 역사적 사실성을 문제 삼는 비판은 공감에서 강한 호응을 얻었다. 어느 하나의 지표만으로 전체 여론을 대표하거나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이번 논란은 기존의 현대사 서사에 대한 대중의 반론이 강하게 가시화된 사례다. 비판의 중심에는 역사적 사실성과 창작적 재구성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는 기존 문화콘텐츠가 제시하는 역사 해석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증과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과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능력은 다르다. 비판적 참여는 단기간에 집중됐지만 영화는 상당한 관객을 확보했다. 문화적 영향력은 개별 논쟁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콘텐츠의 기획·제작·투자·유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축적된다.

VI | 정책적 함의: 플랫폼 설명책임과 역사 사실 검증 체계

이번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다.

첫째, 검열이 아니라 검증과 투명성이다. 국가는 어느 쪽의 여론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플랫폼이 여론을 어떻게 집계하고 보여주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 창작자는 역사를 재구성할 자유가 있지만, 시민도 그 해석의 근거를 확인하고 반박할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자금이 참여한 경우라면 투자 결정에 대한 설명책임도 추가된다.

셋째, 반응을 넘어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발전시키려면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연구 기반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연구는 대중의 자발적 반론 에너지를 음모론과 냉소로 소진시키지 않고, 공론장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문화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표 17] 정책 과제별 제도 개선 권고와 추진 시점

정책 과제	핵심 문제 및 결핍 요소	구체적 제도 개선 권고	추진 시점
① 네이버 운영 검증	공감수 대규모 정정 및 정렬 변경의 실제 편향 영향 미검증	평점 구간별 감산 통계 및 노출 영향도 독립 검증	단기 현안
② 현대사 사실 검증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를 판별할 공적 인프라 결여	사실 대조표(Fact Sheet) 표준화 및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단기·중기
③ 플랫폼 설명책임	알고리즘 변경 및 비정상 클릭 필터링 기준의 불투명성	사전 운영 규칙 공표, 변경 공시제, 공익적 데이터 접근권	중기 제도화
④ 문화 비평·생산 생태계	단기적 댓글 비판에 치우쳐 실질적 서사 생산 기반 부재	사료 연구 기반 시나리오 기획 지원 및 비평 생태계 활성화	중장기 지속

6.1. 포털 평점 집계 오류 및 정렬 기준 변경 영향 검증

정치권의 '조작설' 대 '정상 운영' 공방을 종식시키기 위해, 네이버가 단행한 조치의 실질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실증해야 한다.

첫째, 평점 구간별 상세 감산 통계를 공개하고 필터링의 공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중복 집계된 숫자를 바로잡았다는 해명을 넘어, 1~2점, 3~8점, 9~10점 구간에서 각각 몇 건의 공감·비공감이 삭제됐는지를 탭별로 세분화해 밝혀야 한다. 만약 특정 저평점 관람평에 감산이 99% 집중됐다면, 왜 해당 구간에서만 중복 오류나 비정상 클릭이 집중 발생했는지, 그 필터링 로직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어뷰징 회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탐지 임계값은 비공개하더라도, 사후적인 감산 규모(탭별·평점대별 제외 건수)는 대외 공시하고, 알고리즘의 공정성 여부는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한 독립적 제3자(규제기관·학계 전문가)가 사후 감사(Audit)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본 정렬 변경에 따른 가시성 왜곡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기본 정렬을 변경함으로써 상단 1페이지에 노출되는 평점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경 시점과 지속 기간을 명시하고 타 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약관이 존재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6.2. 현대사 콘텐츠 사실 대조표 및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역사 왜곡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시민이 방대한 판결문과 사료를 일일이 찾아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쟁이 감정적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사실 검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표 18] 플랫폼 운영 검증 영역과 요구 자료

핵심 검증 영역	구체적 검증 질문	플랫폼 기업 요구 제출 자료
집계 정정 내역	공감수 감산이 특정 평점 구간에 편중되어 집행되었는가?	탭별·평점대별 정정 전후 공감·비공감 로그 집계표
정렬 변경 영향	최신순 전환으로 인해 상단 노출된 긍정/부정 비율은 어떠한가?	정렬 변경 전후 페이지 뷰 및 관람평 상단 노출 기록
어뷰징 판정 로직 (제3자 독립 감사)	매크로 판별 및 중복 감산 기준이 특정 평점대에 편향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비정상 트래픽 탐지 기준 명세 및 적용 로그 (※ 어뷰징 우회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외 비공개하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한 독립 감사기구에 제출)
운영의 일관성	다른 논란작품에서도 동일한 정렬 변경 및 고소 조치가 취해졌는가?	과거 유사 사례 조치 이력 및 내부 운영 매뉴얼

첫째, '현대사 사실 대조표(Fact Sheet)' 시스템을 도입한다. 실존 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룬 대중문화 콘텐츠가 개봉할 때, 역사학계와 전문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극 중 주요 장면과 확정된 사료 간의 일치 여부를 대조한 표준 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작품 상영을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객이 허구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장치다.

[표 19] 현대사 사실 검증의 평가 범주와 판정 기준

검증 평가 범주	대조 사료 및 증거 원천	객관적 판정 및 표기 기준
확정된 역사적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문, 국가기록원 공식 정부 기록	일시, 장소, 행위 주체, 사법적 결론과의 완벽한 일치
학술적 논쟁 영역	상반된 사료, 학계 논문, 복수의 당사자 증언	정설과 이설이 대립 중인 상태로 병기
극적 허구 및 재구성	영화 시나리오, 감독 인터뷰, 연출 기법	극적 긴장감을 위해 완전히 창작된 가설임을 명시
사실 오인 유도 표현	영화 홍보 문구, 포스터 카피, 언론 배포 자료	허구적 설정을 역사적 실화인 양 오도하는 표현 식별

둘째, '국가기억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에 분산된 근현대사 사건 사료, 수사 기록, 당시 언론 보도, 구술 증언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계 구축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창작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국가가 특정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검증 가능한 '사료의 바다'를 제공함으로써 역사 해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6.3.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리뷰 플랫폼 설명책임 제도화[부록 D 참조]

해외 플랫폼도 리뷰 조작과 비정상적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 평점 산식을 조정하고, 리뷰를 삭제하거나 표시 방식을 변경해 왔다. 다만 개입의 범위와 절차, 이용자에게 제공한 선택권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20] 해외 플랫폼의 평점·리뷰 개입 사례

플랫폼	작품	시기	무엇을 바꿨나	범위	기준 공개	결과	제재·소송
Steam (Valve)	《Metro Exodus》, 《Borderlands》 시리즈 등	2019.3~	게임과 직접 관련 없는 비주제적 리뷰 폭격을 기본 리뷰 점수 산정에서 제외. 리뷰 자체는 삭제하지 않으며, 모든 리뷰 폭격을 일괄 배제하는 제도는 아님	일반 규칙의 작품별 발동	탐지·표시 방식 공개. 이용자가 해당 리뷰를 포함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보도	과거 사건은 소급하지 않음	없음
IMDb(Amazon)	《The Little Mermaid》 (2023) 등	2023.5~	비정상적 투표 활동 감지 시 대체 가중치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 리뷰 삭제가 아닌 산식·가중치 조정 방식	일반 규칙의 작품별 발동	적용 사실만 공개, 산식은 비공개	평점 변동	없음
Rotten Tomatoes	《Captain Marvel》(2019)	2019.2	개봉 전 '보고 싶어요' 비율 표시와 코멘트 기능 폐지. 같은 해 5월 티켓 구매 인증 관객 점수 도입	전체 정책 (작품명 미언급)	블로그 공지. 사유는 '혼동·트롤링'	반대 진영은 '검열'이라 비판	없음
Metacritic	《The Last of Us Part II》 (2020), 《Horizon: Burning Shores》(2023)	2020.6, 2023.4	게임 리뷰 출시 후 36시간 게시 대기 도입. 2023년에는 개별 리뷰 수동 삭제	섹션 전체 / 작품 단위	대변인 성명, 삭제 기준·건수 비공개	사용자 점수 2.7 → 4.0	없음
Amazon	H. Clinton 《What Happened》 (2017)	2017.9	게시 기준 위반을 이유로 리뷰 일부가 삭제됐다는 보도. 삭제 규모는 보도마다 달라 총량 확정 곤란	일반 트리거의 작품별 발동	'제품과 관련된 리뷰여야 한다'는 일반론만	확인 필요	없음
Google Play	Robinhood 앱 (2021)	2021.1	대량의 부정적 리뷰 삭제 보도. 비정상적 리뷰 폭격에 대한 대응 사례 (삭제 리뷰 전체가 조작이라 단정할 수 없음)	정책의 작품별 발동	일반론만. 실제 불만을 어떻게 '비자연적'으로 판정했는지 답변 거부	앱 평점 회복 (보도)	없음
타베로그(일본)	체인 음식점 21개 점포	2019.5	체인점 평점 알고리즘 변경	전체 알고리즘	변경 사실은 공개, 산식 비공개	평균 약 0.2점 하락	1심 3,840만 엔 배상 → 2심 역전 → 최종 판결 및 결정 번호 확인 필요

주: Steam은 리뷰를 삭제하지 않고 평점 산정에서 제외한 사례다. Rotten Tomatoes의 변경은 특정 영화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개봉 전 평가 기능 전반에 대한 정책 변경이었다. Metacritic의 36시간 대기 규칙은 2020년 7월 발표됐으며, 2023년의 리뷰 삭제는 별도의 운영 조치다. 표의 조치는 법령 위반이나 조작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리뷰·평점의 삭제·배제 사실과 그 이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단정적으로 서술했으며, 조사·경고·보도·공식 결정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판결 결과는 "확인 필요"로 표기했다.

Metacritic은 리뷰 폭격에 대응해 이용자 리뷰 등록 대기시간을 도입했다(Fisher, 2020). Rotten Tomatoes는 관람 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평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관객 평점 제도를 개편했다(Spangler, 2019).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은 특정 게임에 비정상적인 리뷰 폭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점수 산정에서 배제하되, 배제 사실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명확히 공시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당 리뷰를 포함하여 점수를 재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Game Developer, 2019; Vallve, 2019). 영화 평점 사이트인 IMDb 역시 비정상 투표가 감지되면 가중치를 조정한 대체 산식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페이지에 고지한다(IMDb Help, n.d.; IMDb, 2026; Murphy, 2023). 반면 Amazon은 리뷰를 대규모로 삭제했지만 개별 판정의 세부 기준은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Hijazi, 2017;Flood, 2017). Google Play에서는 2021년 Robinhood 앱에 달린 부정적 리뷰 약 10만 건이 삭제됐다(Peters, 2021).

따라서 플랫폼의 설명책임은 ① 사전에 공개된 일반 규칙의 존재 ② 규칙 적용 사실의 고지 ③ 원자료 접근과 다른 보기 방식의 보장 ④ 변경 사유와 범위에 대한 사후

설명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도 공감수 재집계와 기본 정렬 변경을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된 기준과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

일본 타베로그 소송에서는 평점 산식 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돼 2026년 3월 플랫폼의 승소가 확정됐다(東京高等裁判所, 2024; 毎日新聞, 2026). 이 판결은 플랫폼이 평점 산식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변경 목적과 방법의 합리성, 거래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집계·정렬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 리뷰 규제(Federal Trade Commission, 2024),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제도(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n.d.), EU 디지털서비스법(Regulation (EU) 2022/2065),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의 책임과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규정과 집행 사례는 [표 22] 및 [부록 D]에 정리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소비자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포털 영화 평점과 공감·비공감 집계, 기본 정렬 변경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여론의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계·정렬 변경에 대한 설명책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입법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포털 플랫폼이 기본 정렬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기술적 사유와 적용 범위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렬 기준 변경 사전 고시제가 필요하다. 둘째, 부정 트래픽 차단이나 시스템 오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반응 수치가 감산·보정될 때 일시, 규모, 사유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시하는 대규모 집계 보정 공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공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어뷰징 우회 악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탐지 임계값은 대외 비공개로 보호하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NDA)를 전제로 독립적 기술 전문가가 시스템 로그를 사후 감사(Audit)할 수 있도록 연구자 데이터 접근권과 독립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6.4. 반응하는 공론장에서 생산하는 문화 생태계로의 전환

단기적인 댓글 분노와 평점 테러는 다음 세대의 역사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 온라인 공론장의 에너지를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비판을 넘어선 '대응 서사(Counter-narrative)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21] 미국·일본·EU·영국의 리뷰·플랫폼 투명성 제도 비교

비교 항목	미국	일본	EU	영국
핵심 제도	FTC 소비자 리뷰 규칙(2024)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2021 시행)	DSA(2022)	DMCC법(2025 소비자 보호 규정 시행)
주요 규율	가짜 리뷰·기만적 억압·평가 조건부 보상	지정 플랫폼의 거래조건·순위 기준 공개	추천 시스템 주요 매개변수 설명	가짜 리뷰 금지 및 예방·제거 조치
정렬 기준 공개	모든 서비스에 일반적 공개 의무는 없음	지정 플랫폼에 주요 사항 공개 의무	제27조에 주요 매개변수 설명 의무	일반적인 정렬 산식 공개 의무는 아님
2026년 주요 집행·판단	2025년 12월 10개 기업에 경고 서한(위반 확정·제재 아님)	타베로그 소송: 최종 판결 및 결정 번호 확인 필요	대형 플랫폼의 DSA 준수 감독 진행	2026년 3월 5개 기업 소비자법 조사 착수(위법 결론 없음)
국내 시사점	**편집 재량과 기만행위 구분**	**주요 기준 공개와 사후 평가**	**추천 원리와 이용자 선택권**	**사업자의 적극적인 부정 리뷰 대응**

주: 각국의 제도와 주요 집행 사례를 비교·정리함. 일본 타베로그 사건의 최종 판결 및 결정 번호는 확인 필요. 미국 FTC 서한은 잠재적 위반에 대한 경고로 위반 확정이나 제재 결정이 아니며, 영국 CMA는 조사 착수 단계로 위법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음. 미국 FTC(2024, 2025), 일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2021) 및 타베로그 판결(2024, 2026), EU 「디지털서비스법」(2022) 및 집행위원회 발표(2025~2026), 영국 CMA(2025, 2026)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세부 내용과 참고문헌은 [부록 D] 참조.

첫째, 현대사 연구와 문화콘텐츠 기획의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계에 축적된 실증 사료가 논문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영화, 드라마, 웹툰, 다큐멘터리 등 대중문화 서사로 발화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인큐베이팅과 사료 자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문화 비평 공론장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의 평점 게시판은 1점과 10점의 양극화된 운동장이다. 역사적 사료의 엄밀성과 영화적 미학을 균형 있게 짚어내는 전문 비평가들의 다원적 비평 담론이 대중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플랫폼 내 비평가 탭의 다각화 및 독립 비평 매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22] 단계별 정책 과제와 실행 로드맵

단계	핵심 정책 과제	구체적 실행 방안	최종 검증 지표
단기 (1~6개월)	포털 알고리즘 변경 및 집계 오류의 객관적 검증	네이버 감산 데이터 및 정렬 변경 로그 독립 감사, 국회 및 규제기관을 통한 운영 일관성 확인	평점대별 감산 통계 공표, 정렬 변경 효과 보고서 발간
중기 (6~18개월)	플랫폼 설명책임 제도화 및 사실 대조표 시범 운영	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큐레이션 공시제 도입, 역사콘텐츠 팩트시트 배포	정렬 매개변수 가이드라인 확립, 표준 사실 대조표 구축 완료
장기 (18개월~)	국가기억 아카이브 완성 및 문화 생산 생태계 구축	근현대사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개방, 사료-스토리텔링 연계 창작 지원 펀드 운용	사료 기반 창작 콘텐츠 누적, 다원적 역사 비평 지형 형성

VII | 결론: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사실에 기초한 역사, 다음 세대의 기억

영화《암살자(들)》논란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대중의 강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며,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수많은 이용자가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압도적인 공감을 표시했지만, 영화는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확보했다. 이는 온라인 여론이 중요한 사회적 힘이지만, 그 영향력이 문화시장과 국가적 기억에까지 이어지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여론의 크기뿐 아니라 그 여론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남긴 평점과 공감은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지만, 이를 집계하고 정렬해 보여주는 권한은 플랫폼에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면 대중은 자신이 접하는 수치가 실제 이용자의 반응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플랫폼의 투명성은 단순한 기술적 관리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신뢰성과 공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민주적 원칙이다. 이번 논란에서 확인된 공감 표시값의 급변과 정렬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설명책임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도 중요하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은 작품의 신뢰성과 예술적 가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곡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어렵다. 객관적 사료에 기반한 역사 검증을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국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과제는 두 가지다. 여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플랫폼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 다음 세대의 기억으로 이어지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설득력 있는 문화적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전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공론장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며, 후자는 그 목소리에 담긴 문제의식을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여론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와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문화적 역량이 함께할 때, 대중의 문제의식은 일시적인 논란을 넘어 검증된 사실에 기초한 역사 인식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기억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

부록 A

교차검증: 언론사 유튜브 댓글에서도 공감은 비판을 향했다

본 부록은 1.2절에서 예고한 교차검증(triangulation)의 자료, 방법, 결과를 정리한다. 검증 대상은 발견 1 가운데 '표시된 반응(공감)은 비판에 쏠렸다'는 명제에 한정한다. 네이버와 독립된 언론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좋아요 상위 100개 댓글 중 76건이 비판 댓글이었고, 이 100개 댓글에 표시된 좋아요 총합의 78.5%가 비판 댓글에 쏠렸다. 반응을 보인 이용자는 플랫폼을 바꿔도 같은 방향을 향했음을 알 수 있다.

A.1 자료와 방법: 같은 사건을 다룬 독립 플랫폼의 반응 자료를 삼았다

자료. 지상파·종편·보도채널 7개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계정 9개에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다룬 영상 349건 각 영상의 댓글과 답글을 2026년 10월 9일 시점 전수 수집했다. 영상 제목에 '암살자' · '암살자들'이 없는 영상도 모두 이 논란의 파생 보도(박정희 편지 공개, 유해진 자택 앞 집회, 배재고 비교 등)다. 수집 항목은 채널, 영상 제목·업로드일·조회수, 댓글 본문, 좋아요 수, 작성 시점(유튜브가 제공하는 'N일 전' 형식), 작성자 ID다.

항목	수치
채널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TV조선
영상	349건 (업로드 9월 24일 ~ 10월 9일)
댓글	304,176건 (원댓글 234,927 · 답글 69,249)
작성자	120,700명
좋아요 합계	3,041,080
댓글 작성 집중 기간	9월 28일 ~ 10월 9일 (일 단위 추정)
수집 시점	2026년 10월 9일 (단일 시점 표시값)

왜 유튜브인가. 네이버 관람평의 공감과 유튜브 댓글의 좋아요는 모두 본문 2.7절의 '표시된 반응'에 해당한다. 같은 사건, 같은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운영 주체의 플랫폼에서 같은 종류의 지표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공개 자료다. 다만 댓글 작성자는 영화를 보지 않은 뉴스 시청자들도 포함하므로, 이 자료는 발견 1의 평점은 '옹호' 축을 검증하지 않고 '공감은 비판' 축만 검증한다.

분류 기준. 두 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 좋아요 상위 100건은 연구자가 영상 제목과 맥락을 함께 보고 세 범주로 분류했다. 댓글만 읽으면 방향을 알 수 없는 경우('처벌해라'가 영화 제작진을 향한 것인지 시위대를 향한 것인지)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댓글은 본문 [표 5]와 같은 키워드 규칙으로 분류했다. 비판어만 포함한 댓글과 옹호어만 포함한 댓글을 비교하고, 둘 다 포함하거나 둘 다 없는 댓글은 제외했다(분류된 댓글 102,261건, 전체의 33.6%).

범주	기준	포함 예
비판	영화·제작진·배우를 비판하거나, 비판 진영(유족·상영중단 요구·네이버 조작 의혹 제기)에 공감	역사왜곡, 패륜, 처벌 요구, 유족 위로, '배재고는 징계하더니', '네이버 조작'
옹호·반박	영화를 옹호하거나, 비판 진영(시위대·보수 정치인·보수 매체)을 비판·조롱	'홍보해줘서 꼭 보겠다', 시위대 처벌 요구, 정치인 외모 조롱
유보	맥락으로도 방향을 판단할 수 없음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명예훼손'

A.2 공감(좋아요) 상위 100건 중 76건, 공감의 78.5%가 비판 쪽이었다

좋아요 상위 100건을 분류한 결과는 본문 [표 7](네이버 공감 상위 100위 중 97건이 1~2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비판 쪽이 76건으로 상위 100건 좋아요의 78.5%를 차지했다. 옹호·반박 23건은 전부 MBC(14건)와 JTBC(9건) 영상에 달렸고, 그 내용은 영화 자체의 옹호보다 시위대와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홍보해줘서 꼭 보겠다'는 반어가 대부분이다.

구분	건수	좋아요 합계	좋아요 비중
비판 (영화·제작진 비판, 비판 진영 공감)	76	281,800	**78.5%**
옹호·반박 (영화 옹호, 비판 진영 비판)	23	74,400	20.7%
유보	1	2,800	0.8%
합계	**100**	**359,000**	**100%**

좋아요 상위 10건은 다음과 같다. 1위와 2위는 영화가 아니라 네이버의 공감수 정정 조치에 대한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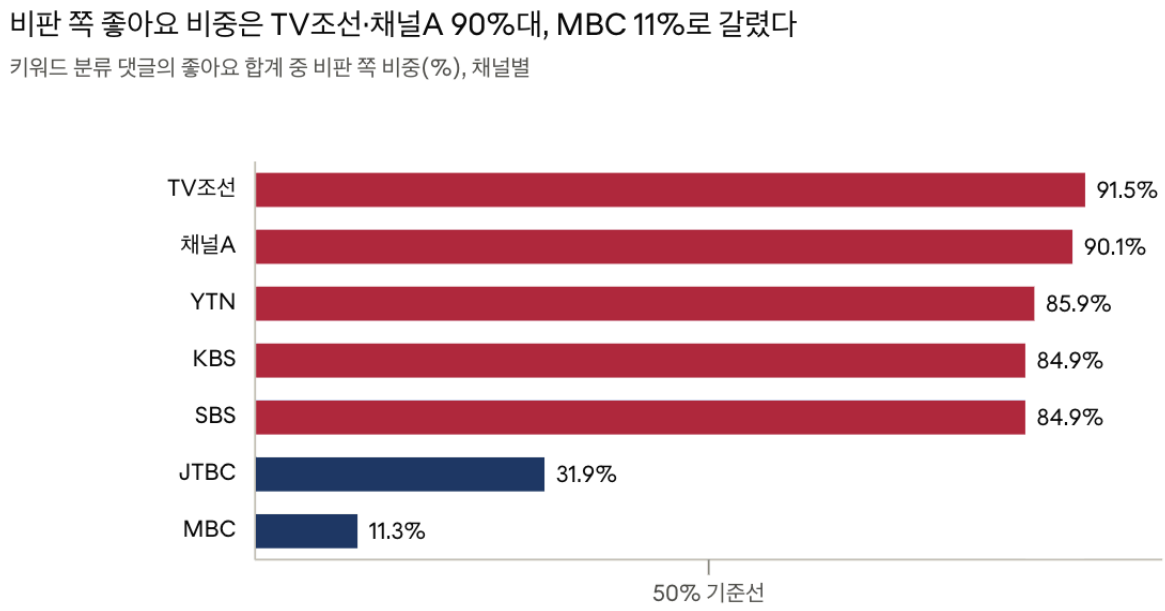
순위	채널	영상	댓글	좋아요	분류
1	채널A	혹평 리뷰 공감 수 137만→5만	공감 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며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거지	11,000	비판
2	채널A	혹평 리뷰 공감 수 137만→5만	네이버도 천안문을 실시하네	9,800	비판
3	MBC	'1점 눌러' 보수 대결집?	홍보 해줘서 천만 찍겠네	8,300	옹호
4	채널A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 공개	진짜 품안에 두고두고 모셔뒀 편지구나	7,900	비판
5	채널A	혹평 리뷰 공감 수 137만→5만	저건 의혹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부르는거다	7,600	비판
6	SBS	육영수 피격이 박정희 자작극? 처벌 요구	이거는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닌 죄질이 매우 안좋은 범죄행위임.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7,100	비판
7	MBC	'1점 눌러' 보수 대결집?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하는 정치집단인데 무슨짓을 못하겠어	6,400	옹호
8	SBS	이동진 리뷰 비공개 전환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표현의 자유	6,300	비판
9	SBS	이동진 리뷰 비공개 전환	스벅 배재고는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니들이 당하니 어때?	6,100	비판
10	채널A	박지만 '우리 아버지 그리 미운가'	먹고 살게 해줬는데 뻔짓들하는거 보면 진짜 너무화난다	6,100	비판

주. 좋아요 수는 유튜브가 1,000 이상에서 반올림해 표시한 값. 댓글 원문 그대로 인용.

전체 댓글을 키워드 규칙으로 분류한 결과도 같다. 분류된 102,261건 가운데 비판 쪽이 건수 기준 66.0%, 좋아요 기준 72.2%다. 좋아요 상위 1,000건만 보면 73.1%다. 상위 100건의 78.5%가 네이버 실관람객 공감 78.5%와 같은 숫자인 것은 우연이며, 이 부록은 '거의 같은 비율'이라는 점만 확인한다.

좋아요의 분포도 네이버 개봉 초기의 공감 쏠림과 같은 '긴 꼬리 형태'다. 댓글의 59.6%는 좋아요가 0이고, 상위 1%가 전체 좋아요의 59.5%, 상위 10%가 93.7%를 차지한다. 본문 2.3절의 사회적 영향 편향, 즉 먼저 노출된 댓글이 반응을 누적하는 구조가 유튜브에서도 작동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 '비판이 압도적'이란 비판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비판이 더 강하게 조직됐다는 뜻이다.

A.3 방향은 같았지만 강도는 매체 생태계에 따라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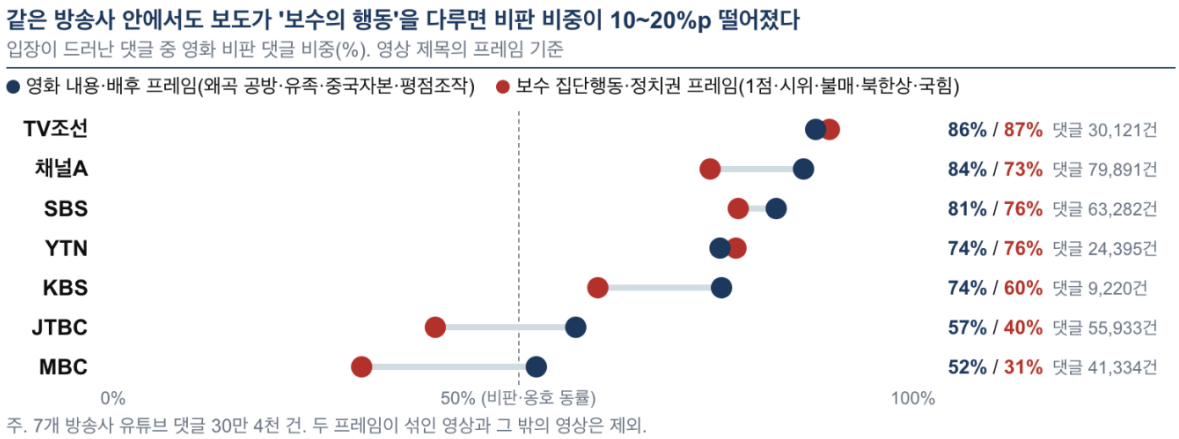


비판 쪽 좋아요 비중은 TV조선 92%, 채널A 90%, SBS·YTN·KBS 85~86%였으나 JTBC는 32%, MBC는 11%에 그쳤다. MBC의 '1점 눌러' 보수 대결집?' 영상과 JTBC의 '버거킹 집회', '역적의 상' 영상에는 시위대와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는 댓글이 몰렸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떤 채널의 댓글창을 보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마주하는 '공론장의 다수'가 달라진다.

이 역전은 교차검증의 약점이 아니라 추가 발견이다. 본문 2.2절의 '침묵의 나선'은 이용자가 다수로 보이는 의견에 동조한다고 설명하는데, 어느 쪽이 다수로 보이는가는 플랫폼의 정렬 규칙뿐 아니라 그 댓글창이 어느 매체에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표본에서 채널A(약 8만 건)와 TV조선(3만 건)의 비중이 크므로, 전체 합계치(72.2%)는 채널 구성의 영향을 받는다. 채널별 분해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채널	댓글 수	좋아요 합계	비판 쪽 좋아요 비중
TV조선	30,121	334,612	91.5%
채널A	79,891	1,034,090	90.1%
YTN	24,395	212,210	85.9%
KBS	9,220	64,432	84.9%
SBS	63,282	636,276	84.9%
JTBC	55,933	381,225	31.9%
MBC	41,334	378,235	11.3%

같은 방송사 안에서도 보도 프레임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다. 채널 차이가 시청자 성향 때문인지 보도 내용 때문인지를 가르기 위해, 영상 제목을 '영화 내용·배후 프레임'(왜곡 공방·유족·중국자본·평점조작)과 '보수 집단행동·정치권 프레임'(1점·시위·불매·북한상·국힘)으로 나누어 건수 기준 비판 비중을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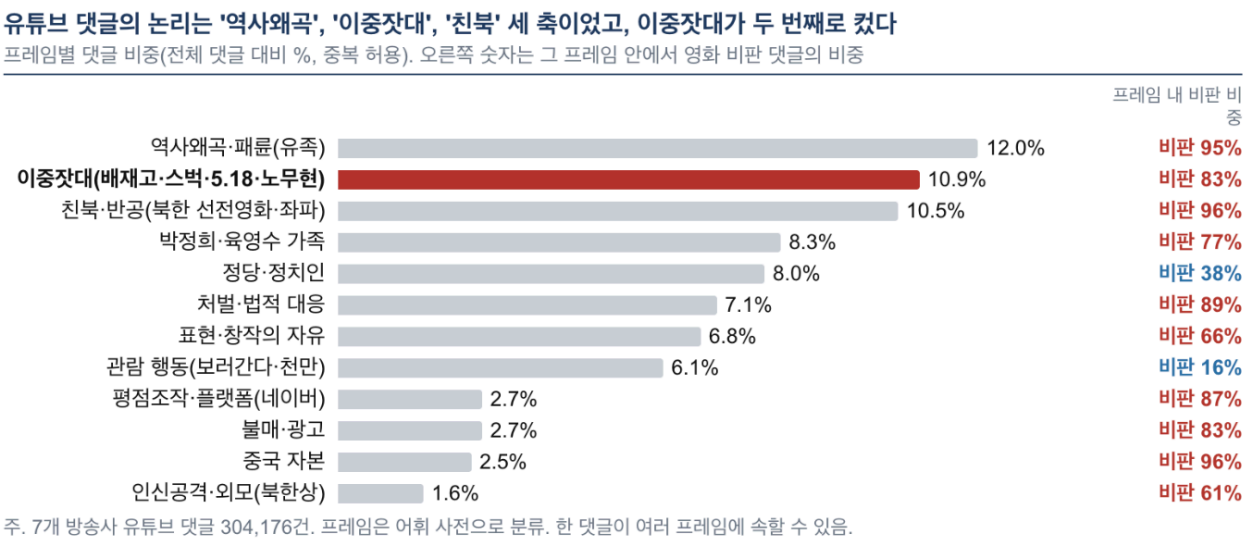
TV조선과 YTN은 두 프레임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채널A(84%→73%), KBS(74%→60%), JTBC(57%→40%), MBC(52%→31%)는 보도가 보수의 행동을 다룰 때 비판 비중이 10~20%p 떨어졌다. 즉 영화 자체가 쟁점일 때는 대부분 채널에서 비판이 과반이지만, 시위·불매·정치인 발언이 쟁점이 되면 비판 진영의 행동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어 우위가 줄어든다. 이는 유튜브 댓글이 영화에 대한 자발적 의견이기 전에 보도 프레임에 대한 반응임을 보여주며, A.8 한계에서 다시 다룬다.

A.4 댓글의 논리는 '역사왜곡', '이중잣대', '친북' 세 축이었고, 이중잣대는 네이버에 없던 프레임이다

먼저 언론이 무엇을 보도했는지 본다. 영상 제목을 기준으로 보도 프레임을 여덟으로 나누면, 댓글의 25%는 '역사왜곡 공방' 보도에, 20%는 '보수 집단행동' 보도에 달렸다. 보도 프레임에 따라 댓글의 비판 비중이 46%에서 84%까지 갈린다. 중국 자본·배후(84%), 박정희 가족·유족(81%), 평점조작·플랫폼(79%) 보도에서 비판이 가장 높았고, 보수 집단행동(49%)과 정치권(46%) 보도에서는 반반에 가까웠다.

언론 보도 프레임(영상 제목 기준)	영상 수	댓글 비중(%)	해당 영상 댓글 중 비판 비중(%)
역사왜곡 공방(왜곡 vs 창작의 자유)	84	25.3	76.7
보수 집단행동(1점·시위·불매·집회)	58	20.1	48.5
배우·평론가 공격(북한상·악플·리뷰 삭제)	30	15.9	65.2
관객·흥행·2030	40	10.6	56.8
박정희 가족·유족(편지·박지만)	28	6.9	81.3
정치권(국힘·국감·민주당)	28	6.8	45.7
평점조작·플랫폼(네이버)	16	6.6	79.4
중국 자본·배후(산은·기은)	6	3.0	83.6

다음으로 댓글 자체가 무엇을 말했는지 본다. 프레임 어휘 사전으로 전체 304,176건을 분류했다(중복 허용, 건수 기준).



세 가지가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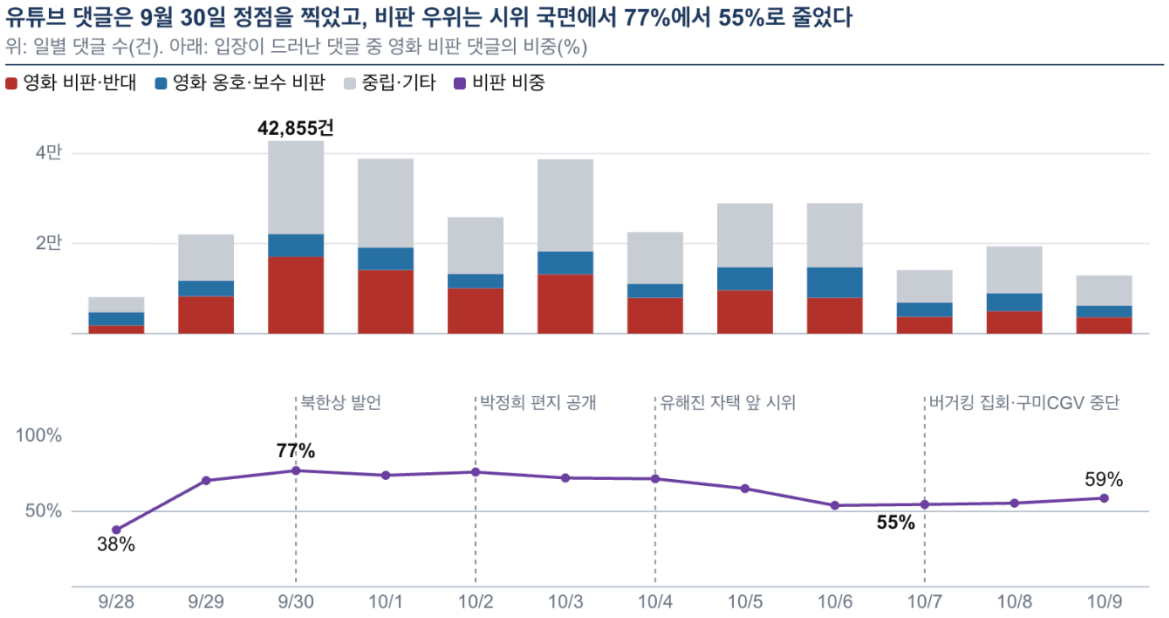
첫째, 비판의 논리는 세 축이었다. 역사왜곡·패륜(12.0%, 프레임 내 비판 95%), 이중잣대(10.9%, 83%), 친북·반공(10.5%, 96%)이 나란히 앞선다. 네이버 1~4점 리뷰에서 확인된 역사왜곡(19.2%)·좌파(9.9%) 어휘가 유튜브에서도 같은 계열로 이어진다. 비판 담론의 핵심 어휘는 플랫폼을 바꿔도 연속적이다.

둘째, '이중잣대'는 네이버 관람평에는 없던 프레임이다. 배재고 야구부·스타벅스 사건, 5·18 특별법, 노무현 전 대통령 소재를 끌어와 '그때는 징계하더니 이건 표현의 자유냐'를 묻는 댓글이 전체의 10.9%로 두 번째로 컸다. 좋아요 상위 100건에서도 8건이 이 프레임이다. 관람평이 '영화가 틀렸다'를 말했다면 뉴스 댓글창은 여기에 '왜 우리에게만 엄격했느냐'를 덧붙였다. 본문 4.5절이 확인한 '대중적 공감을 얻은 것은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논증'이라는 구조가 유튜브에서도 반복되는데, 여기서 논증의 내용은 사료가 아니라 형평성이다. 연구자의 보조 분류로 좋아요 기준을 보면 배재고·내로남불 프레임은 건수 비중(4.7%)보다 좋아요 비중(8.8%)이 두 배 가까이 높아, 많이 쓰인 프레임이기보다 호응을 많이 받은 프레임이다. 이는 보고서 1.5절 '한국적 맥락'에 덧붙일 만한 발견이다.

셋째, 비판이 약한 프레임은 '정당·정치인'(비판 38%)과 '관람 행동'(16%)이다. 영화를 말할 때는 비판이 압도하지만, 정치인의 대응이나 '보러 가겠다'는 행동을 말할 때는 옹호 쪽이 우세한다. 한편 '연기·재미' 같은 작품성 평가는 어느 프레임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적다. 댓글 작성자 대부분이 미관람 시청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프레임 분포는 발견 5(비판은 사실성, 옹호는 작품성)의 검증이 아니라, 비판 담론이 관람평 게시판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관찰이다.

A.5 댓글은 9월 30일 정점을 찍었고, 비판 우위는 시위 국면에서 77%에서 55%로 줄었다

유튜브의 작성 시각은 일 단위 근사치이므로, 이 시계열은 본문 발견 3의 정점 시점과 비교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도 국면에 따른 반응 변화를 기술하는 용도로만 쓴다.



주.7개 방송사 유튜브 댓글 30만 3천 건(9/28~10/9). 10/10은 수집 당일이라 제외. 유튜브 작성 시각은 일 단위 근사치.

댓글은 9월 30일 하루 42,85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네이버 네티즌 탭의 비판 정점(10월 1일)과 비슷한 시기다. 입장이 드러난 댓글 중 영화 비판 비중은 9월 30일 77%로 가장 높았고, 박정희 편지 공개(10월 2일)까지 7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유해진 자택 앞 시위(10월 4일)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버거킹 집회·구미CGV 상영 중단(10월 6~7일) 국면에서 55%까지 내려왔다.

이 흐름은 A.3과 A.4의 발견과 같은 이야기를 시간축에서 보여준다. 논란이 영화의 내용과 배후를 두고 전개될 때는 비판이 압도했지만, 보도의 초점이 비판 진영의 집단행동(자택 앞 시위, 불매, 상영 중단)으로 옮겨가자 그 행동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면서 비판 우위가 줄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한다. 전 기간 어느 하루도 비판이 과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9월 28일은 댓글 8천 건의 초기값). 그러나 비판의 표출 방식이 공론장의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본문 5.3절이 말한 '반응의 단기 폭발과 소진'은 유튜브에서는 비판의 감소뿐 아니라 비판 방식에 대한 역풍으로도 나타났다.

A.6 관람평은 사실성을, 뉴스 댓글은 책임과 형평을 말했다

본문 [표 5]와 같은 방식(키워드 포함 여부, 중복 허용)으로 전체 304,176건을 분류했다. 어느 범주에든 걸린 댓글은 45.2%(좋아요 기준 51.4%)이고, 나머지는 단순 감탄·욕설·짧은 반응이다.

범주	유튜브 건수 비중	유튜브 좋아요 비중	상위 100건 내 등장	네이버 1점 리뷰 비중(본문 4.5절)
배우·감독 책임	12.6%	13.0%	10	—
배재고·스타벅스 내로남불	4.7%	8.8%	8	—
처벌·고소·상영중단	3.9%	8.4%	7	—
유족·패륜	4.5%	5.4%	9	—
표현의 자유·창작	5.0%	5.4%	7	—
북한·간첩	7.3%	5.3%	5	—
홍보효과·관람 의향	3.2%	4.9%	5	—
역사왜곡	5.5%	4.3%	2	19.2%
네이버·조작	2.3%	3.5%	11	—
좌파·빨갱이·종북	5.8%	1.4%	0	9.9%
선동	2.5%	1.7%	0	10.9%
음모론	1.3%	0.8%	0	12.9%
중국자본	2.3%	1.4%	1	—
연기·재미(작품성)	1.9%	1.2%	1	—

주: 중복 허용이므로 합은 100%를 넘는다. 네이버 열은 본문 4.5절의 비판 리뷰(1~4점) 빈도 비율이며, 본문에 수치가 없는 범주는 '—'로 표시.

세 가지가 읽힌다. 첫째, 쟁점이 '사실성'에서 '책임과 형평'으로 옮겨갔다. 네이버 1~4점 저평점 관람평은 사료 검증군(왜곡·음모·선동)이 40.0%였지만, 유튜브에서는 역사왜곡이 5.5%, 음모론·선동은 1~2%대로 내려가고 배우·감독 책임(12.6%), 배재고 내로남불(4.7%), 처벌 요구(3.9%)가 앞선다. 관람평 게시판이 '영화가 틀렸다'를 말했다면, 뉴스 댓글창은 '누가 책임지느냐, 왜 우리에게만 엄격했느냐'를 말했다.

둘째, 많이 쓰인 프레임과 공감을 끌어모은 프레임이 다르다. 좌파·빨갱이·종북 표현은 건수 5.8%지만 좋아요는 1.4%에 그쳐 대중적 호응이 낮다. 반대로 배재고 내로남불(4.7%→8.8%), 처벌 요구(3.9%→8.4%), 네이버 조작(2.3%→3.5%)은 건수보다 좋아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본문 4.5절에서 확인한 '대중적 공감을 얻은 것은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논증'이라는 구조가 유튜브에서도 반복되는데, 여기서 논증의 내용은 사료가 아니라 형평성이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이 실제 담론에서 핵심 비교 준거로 작동했다는 뜻이다.

A.7 다른 발견 및 결론과의 관계: 설명 없는 정정은 조작으로 읽혔다

교차검증의 범위는 발견 1에 한정한다. 발견 2(공감 표시값의 시점별 변동)와 발견 4(인접 관람평의 유사 수치)는 네이버 내부의 정렬·정정 메커니즘에 관한 발견이라 외부 자료로 대조할 대상이 없고, 유튜브는 단일 시점 수집에 비공감 수도 없다. 발견 3(비판의 시계열)은 유튜브의 시각 정보가 일 단위 추정치이고 댓글 양이 영상 업로드 수에 종속되므로 비교할 수 없다. 발견 5는 A.4에서 본 대로 응호 축이 비어 있어 이원화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자료는 본 연구의 결론인 플랫폼 설명책임과 두 가지 경로로 맞닿는다.

첫째, 네이버의 정정 조치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설명 요구를 낳았다. 네이버의 공감수 정정(137만→5만)과 경찰 수사 의뢰를 다룬 영상 9건(채널A·JTBC·TV조선·KBS)의 댓글 10,270건(좋아요 151,267)을 따로 보면, 정정 조치를 오류·중복 집계·정상화로 받아들인 댓글은 좋아요 기준 3.8%였고, 조작·은폐로 해석한 댓글이 58.1%였다.

정정 조치에 대한 해석	건수 비중	좋아요 비중
조작·은폐·'그동안 그래왔다' (불신)	28.4%	**58.1%**
오류·중복 집계·정상화 (수용)	3.1%	3.8%

좋아요 상위 댓글은 본문 [표 11]과 [표 18]가 제기한 검증 질문을 일반 이용자가 그대로 묻는 형태다. '왜 그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조치가 이뤄졌는가'(좋아요 1,700), '왜 이 영화만 공감순 최신순을 뒤집어 놓았나'(좋아요 874), '네이버 직원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냐'(좋아요 1,100), '10점짜리는 그냥 두고 1점짜리만'(좋아요 3,200), '손 안 대면 137만이고 손 대면 5만이란 거잖아'(좋아요 1,500). 플랫폼이 기준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치를 바꾸자, 그 공백은 조작이라는 해석으로 채워졌다. 이는 5.5절 논지의 실증 사례이자, 6.1절이 요구한 집계 정정 내역 공개의 수요 측 근거다.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마주한 한계는 네이버에서 겪은 것과 같다. 좋아요는 1,000 이상에서 반올림되어 표시되고, 작성 시각은 'N일 전'으로만 제공되며, 비공감 수는 공개되지 않고, 기본 노출 순서인 '인기 댓글순'의 기준은 비공개다. 그 결과 댓글의 59.6%는 좋아요 0으로 묻히고 상위 1%가 좋아요의 59.5%를 가져간다. 어떤 댓글이 보이는가를 플랫폼의 비공개 규칙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문 6.3절이 제시한 ① 사전 공개된 규칙 ② 적용 사실 고지 ③ 원자료 접근 ④ 변경 사유 설명의 네 기준은 포털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설명책임 제도화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매개하는 플랫폼 전반의 제도 과제다.

A.8 자료의 한계: 이 교차검증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한계	내용	해석의 제약
모집단 차이	댓글 작성자 대부분이 영화를 보지 않은 뉴스 시청자	'평점은 옹호' 축과 '작품성' 평가는 검증 불가. '공감은 비판' 축만 검증
채널 표본 구성	채널A·TV조선이 댓글의 36%를 차지	전체 합계치는 보수 성향 채널 비중의 영향을 받음. 채널별 분해표와 함께 읽어야 함
시각 정보	'N일 전' 형식만 제공되어 일 단위 추정치(±1일)	시간대 분석과 정점 시점 비교 불가
좋아요 표시값	1,000 이상 반올림, 10월 9일 단일 시점, 비공감 비공개	정밀 순위와 시점 간 변동 분석 불가. 네이버와 같은 '표시값 기준' 한계
언론 의제의 반영	댓글은 기사 프레임에 대한 반응	주제 분포(A.4)는 자발적 의제라기보다 언론 의제의 반영일 수 있음
키워드 분류	부정문('왜곡 아님') 오분류, 분류된 댓글은 전체의 33.6%	전수 비율(72.2%)은 보조 지표. 주된 근거는 수기 분류한 상위 100건
'조작'의 방향	A.7의 '조작' 표현은 네이버를 향한 것과 비판 진영을 향한 것이 섞임	'정정을 중립적 오류 수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까지만 말할 수 있음
반응의 성격	상위 1%가 좋아요의 60%를 차지하는 집중 구조	반응의 '폭'이 아니라 '강도'를 재는 지표. 여론의 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됨

부록 B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포털·플랫폼 투명성 지적 주요 사례 (국내외 비교)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대형 포털과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정보 유통과 가시성을 독점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블랙박스')과 여론 왜곡 위험에 대한 공적 비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 제기되어 왔다. 한국은 주로 '뉴스 편집·배열의 편향성 및 댓글·실검 등 반응 지표의 조작 취약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해외는 '추천 알고리즘의 극단주의·확증편향 증폭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중심으로 투명성 강화와 법적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한국의 주요 지적 사례: 게이트키핑의 공정성과 지표 조작 취약성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지배적 포털이 사실상 언론사 이상의 의제설정 및 여론 매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배열 알고리즘과 반응 집계 메커니즘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및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폐지 (2018~2021년):**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동원해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치를 대규모로 조작함으로써 상단 노출 댓글을 장악하고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이와 함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역시 특정 집단이나 상업적 어뷰징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털이 여론 왜곡의 장을 제공하고도 방어 로직과 집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카카오는 2020년, 네이버는 2021년 실검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댓글 노출 및 정렬 방식을 개편했다.
- **스포츠 뉴스 인위적 재배치 논란과 AI 알고리즘 블랙박스 비판 (2017년~현재):** 2017년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 임의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나 공식 사과한 사건이다. 이후 포털들은 인위적 편집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AI 알고리즘 기반 자동 뉴스 배열'을 전면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인간의 편집권이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블랙박스 뒤로 은폐됐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가중치 산식과 노출 원리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불투명한 거버넌스 논란 (2023년 잠정 중단):** 포털 내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던 자율규제기구인 제평위가 심사 세부 기준,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밀실 심사' 및 '이념적 편향성'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 선정 과정이 투명한 설명책임 없이 운영된다는 비판 끝에 2023년 5월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 **선거철·대형 이벤트 시점의 반응 지표 조작 논란 및 규제 당국 조사 (2023~2024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다음(카카오)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 취약성이 노출되고, 네이버 뉴스의 배열 편향성 및 어뷰징 방치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가 직접적인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2. 해외의 주요 지적 및 규제 사례: 알고리즘의 분열 증폭과 법적 설명책임 강제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빅테크 플랫폼의 추천·검색 알고리즘이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한다는 내부 고발과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며 강력한 입법 규제로 귀결됐다.

- **메타(페이스북) 내부 고발 사건 — 프랜시스 하우겐의 의회 증언 (2021년):**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 체류 시간과 참여율(Engagement)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노, 혐오, 극단적 분열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우선 노출하도록 설계됐다"고 내부 문건('The Facebook Files')과 함께 폭로했다. 플랫폼이 수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허위정보 확산을 방치하면서도, 외부 연구자와 대중이 이를 검증할 수 없도록 알고리즘 작동 원리와 데이터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점이 핵심 비판이었다.
-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과 'X(구 트위터)' 제재 절차 (2023~2024년):** EU는 온라인 여론 왜곡과 불투명한 콘텐츠 큐레이션을 규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여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제27조)와 공인된 외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허용(제40조)을 법적 의무로 부과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2월 X(구 트위터)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외부 연구자들의 데이터 스크래핑 및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등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식 조사 및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운영 및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 (2020~2024년):** 구글이 검색 결과 노출 과정에서 자사 생태계나 특정 계약을 우대하면서도 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알고리즘의 산물'로 포장해 정보 접근성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판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검색 랭킹 산정 방식과 트래픽 통제 메커니즘을 외부에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내부 문건들이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개인정보 유출 및 정치 선동 사건 (2016~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성향 데이터가 무단 수집되어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당시 유권자 맞춤형 정치 선동(마이크로 타겟팅)에 악용된 사건이다. 플랫폼의 정보 노출 및 타겟팅 기준이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작된 여론 환경에 고립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투명성 지적 사례 및 대응 구조 비교

구분	한국 주요 사례 (네이버, 카카오 등)	해외 주요 사례 (구글, 메타, X 등)
핵심 문제 영역	• 뉴스·콘텐츠 인링크 배열 및 편집 기준 • 댓글 공감·비공감, 실검 등 반응 지표 조작 • 제휴 언론사 입점·퇴출 심사(제평위)의 밀실성	• 분노·극단주의를 증폭하는 추천 알고리즘 • 마이크로 타겟팅 기반 맞춤형 정치 선동 • 검색 랭킹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독점 운영
투명성 비판의 요지	인위적·정치적 개입이나 집계 오류 정정이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 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플랫폼이 상업적 이익(체류시간·독점)을 위해 공론장의 분열과 정보 왜곡을 조장하면서도 외부 검증을 차단하는가?'
주요 대응 및 제도화	• 실검 폐지 및 댓글 노출 방식 변경 •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운영(자율규제 중심) • 방통위 사실조사 및 알고리즘 투명성 입법 논의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매개변수 공개 및 외부 연구자 데이터 접근권 법제화 • 미 의회 청문회 및 반독점 사법 판결을 통한 강제 검증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18). 포털의 뉴스서비스 및 댓글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1455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모, & 안지수. (2019). 포털 뉴스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과 쟁점: 드루킹 사건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2), 7-44.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2018, 2022, 2023).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검토 보고서 (1~3차). 성남: 네이버(주).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방송통신위원회. (2023. 7. 5.). 방통위,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착수 [보도자료].

심영섭. (2021). 포털 뉴스서비스 자율규제기구로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언론중재, 158, 4-17.

오세욱, & 송해엽. (2019).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진봉. (2020). 포털 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언론과학연구, 20(1), 145-182.

European Commission. (2023, December 18). Commission opens formal proceedings against X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Press release, IP/23/6709].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2, October 19). Regulation (EU) 2022/2065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77, 1-102.

Gillespie, T. (2018). Custodians of the Internet: Platforms, Content Moderation, and the Hidden Decisions That Shape Social Medi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Haugen, F. (2021, October 5). Protecting Kids Online: Testimony from a Facebook Whistleblower.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Product Safety, and Data Security, United States Senate, 117th Cong.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CMS). (2019).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inal Report (HC 1791).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Pasquale, F. (2015). The Black Box Society: The Secret Algorithms That Control Money and Inform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et al. v. Google LLC, Case No. 1:20-cv-03010-APM (D.D.C. August 5, 2024).

부록 C

관람평 내용분석 코드북

분석 변수·분류 기준·코딩 절차 및 한계

C.1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코드북은 본문 제III장 3.3절의 주제 분류와 키워드 분석에 적용한 분류 지침서다. 분류 대상은 2차 수집(2026년 10월 17일) 관람평 가운데 실관람객 3,700건과 네티즌 9,335건이다. 코드북은 두 가지 분석에 쓰인다. 하나는 관람평 한 건을 하나의 주제에 배정하는 주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 특정 표현이 들어 있는지를 규칙으로 판별하는 키워드 분석이다.

코드북의 목적은 세 가지다.

- 같은 관람평이 언제 읽어도 같은 주제로 분류되도록 판단 기준을 명시한다.
- 본문 제IV장 발견 5(비판은 역사적 사실성, 옹호는 작품성과 관람 경험)의 분류 결과를 외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한다.
- 다른 영화의 관람평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C.2 분석 단위, 코딩 변수, 제외 기준

분석 단위는 관람평 한 건이다. 평점, 본문, 작성일, 작성자 마스킹 ID(앞 4자리), 공감수, 비공감수는 수집 시점의 표시값을 그대로 기록하고, 코더는 아래 표의 '코더 입력' 변수만 판단한다.

변수	값	출처
관람평 ID	수집 순번(탭 약어 + 순번, 예: R-0001, N-0001)	수집
탭	R(실관람객) / N(네티즌)	수집
평점	1~10	수집
평점 구간	비판(1~4) / 중간(5~7) / 옹호(8~10)	자동 산출 (C.3)
작성일	YYYY-MM-DD	수집
본문	관람평 텍스트 원문	수집
제외 플래그	X1 / X2 / 해당 없음	코더 입력 (아래 기준)
주요 주제	주제 코드 1개 (C.4)	코더 입력
중복 주제	주제 코드 1개 이상, 주요 주제 포함	코더 입력
본문 입장	옹호 / 비판 / 중립·혼합 / 판단 불가 (C.3)	코더 입력
키워드 플래그	범주별 0/1 (C.6)	정규식 자동 판별
비고	판단 근거, 경계 사례 여부	코더 입력

제외 기준. 다음 두 유형은 평점·공감 집계에는 포함하되 주제 분류와 키워드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본문 4.5절과 그림 12의 분모(비판 395건, 옹호 3,113건)는 이 제외를 반영한 수치다.

코드	제외 유형	기준	비고
X1	스포일러 가림	플랫폼이 본문을 가려 텍스트를 확인할 수 없는 관람평	실관람객 126건
X2	초단문	공백을 제외한 본문이 5자 미만 (예: '최고', '별로', 'ㅋㅋ')	5자 이상이면 내용이 없어도 분류 대상

제외 여부는 코더가 판단하기 전에 자동 규칙으로 먼저 걸러내고, 코더는 결과만 확인한다. 실관람객 관람평의 평점 구간별 분석 대상 건수는 다음과 같다.

평점 구간	원래 건수	제외 건수	최종 분석 건수
비판(1~4점)	409	14	395
중간(5~7점)	67	1	66
옹호(8~10점)	3,224	111	3,113
합계	**3,700**	**126**	**3,574**

C.3 평점 구간 코드와 본문 입장 코드

평점 구간은 평점에서 자동으로 산출하고, 본문 입장은 본문만 읽고 따로 판단한다. 두 변수를 분리하는 이유는 평점과 본문의 방향이 어긋나는 관람평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점을 주고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쓴 관람평은 평점 구간 '옹호', 본문 입장 '옹호'이지만 키워드 '역사왜곡'에는 잡힌다. 이 어긋남을 확인하려면 두 변수가 모두 필요하다.

평점 구간 (자동 산출)

코드	구간	평점	본문 표기
C	비판(부정)	1~4점	저평점
M	중간(중립)	5~7점	중간 평점
S	옹호(긍정)	8~10점	고평점

본문 입장 (코더 판단)

코드	입장	판단 기준	예시
P1	옹호	영화·제작진·메시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본문의 중심	'오랜만에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
P2	비판	영화·제작진·메시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본문의 중심	'근거 없는 소설을 왜 사실처럼 만드나? 명백한 역사왜곡'
P3	중립·혼합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중으로 함께 있거나, 평가 없이 관람 사실·궁금증만 서술	'하도 논란이라 직접 보러 갔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P4	판단 불가	본문이 영화와 무관하거나(광고, 다른 영화 언급), 의미를 알 수 없음	—

입장 판단 규칙은 세 가지다.

1. 평점을 보지 않고 본문만으로 판단한다. 평점은 이미 별도 변수로 기록돼 있다.
2. 반어와 부정문에 주의한다.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옹호(P1), '잘 만들었네, 소설을'은 비판(P2)이다.
3. 평점 구간과 본문 입장이 다르면 비고란에 '불일치'로 표시한다. 이 사례는 C.7의 재검토 단계에서 다시 확인한다.

C.4 주제 코드 체계

주제 코드는 6개 분석 대범주와 기타 범주를 포함한 7개 범주, 총 16개 세부 코드로 구성된다. 대범주 A·B는 주로 옹호 관람평에서, C·D·E는 주로 비판 관람평에서 나타나지만, 코드 자체는 입장을 전제하지 않는다. 같은 코드가 옹호와 비판 양쪽에 모두 배정될 수 있다(예: B2 역사 해석 옹호는 10점 관람평에, C1 역사왜곡 비판은 1점 관람평에 많다). 본문 제IV장 4.5절의 집계 범주와 코드의 대응은 '본문 집계' 열에 표시했다.

주요 주제 비율의 합산 기준. 본문의 주요 주제 비율은 관람평 한 건에 배정한 주요 주제 코드 하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산했다. 한 관람평은 하나의 집계 범주에만 들어가므로 비율의 합은 100%다. 본문의 보조 수치(사료 검증군 9.9%·11.4% 등)는 주요 주제가 아니라 C.6의 키워드 규칙으로 산출한 값이다.

본문 집계 범주	합산한 주요 주제 코드
배우 연기력과 몰입감 (41.6%)	A1 + A2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메시지 (21.2%)	B1
추석 가족 동반 관람 추천 (14.8%)	A3
역사 왜곡과 음모론 비판 (10.5%)	C1 + C2 + C3, 그리고 사실성 논증이 중심인 D3
작품성·역사 해석 옹호 (작품성군)	B2
정치·이념 프레임	D1 + D2, 인물 평가가 중심인 D3
플랫폼·관람 가치	E1, F1
기타	E2, Z1, Z2

코드	명칭	정의	포함	제외	대표 사례 (본문 인용)	본문 집계
A. 작품성·관람 경험						
A1	**배우 연기·몰입감**	배우의 연기력, 감독의 연출, 긴장감·몰입감 등 작품 완성도에 대한 평가	배우 실명 호명, 연기 칭찬·비판, 연출·편집·긴장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만 언급하면 A2, 메시지 공감이면 B1	'배우들 연기력 진짜 미쳤네요… 박해일 유해진 믿보배', '허진호 감독 연출력 탄탄하네요. 웰메이드 영화'	배우 연기력과 몰입감 (41.6%)
A2	**재미·오락성**	재미있다/없다, 지루하다, 졸았다 등 관람 중 느낀 흥미의 정도	'재밌게 봤다', '후반부 졸다 왔음', '지루함'	연기·연출을 근거로 들면 A1	'2시간이 순삭', '후반부 졸다 왔음'	A1에 합산

코드	명칭	정의	포함	제외	대표 사례 (본문 인용)	본문 집계
A3	**관람 추천·동반 관람**	특정 대상(가족, 부모님, 자녀)에게 관람을 권하거나 말리는 내용, 명절 관람 경험	추석 가족 관람, '부모님 모시고', '절대 보지 마세요'	관람을 말리는 근거가 역사왜곡이면 C1이 주요 주제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좋아하셨어요'	추석 가족 동반 관람 추천 (14.8%)
B. 영화의 메시지와 역사 해석 수용						
B1	**언론 탄압·민주주의 메시지**	유신 시절 언론 통제, 독재, 기자의 진실 추적 등 영화의 메시지에 대한 공감	'진실', '기자', '언론 탄압', '독재', '그 시대', '민주주의의 소중함'	현재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면 E1 또는 Z	'언론검열 탄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1점·비판 맥락), '독재 시대 참언론인들의 사명감과 진실 추적 과정에 감동'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메시지 (21.2%)
B2	**역사 해석 옹호·왜곡 반박**	영화의 역사 해석이 타당하다거나,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충분히 가능한 가설'	왜곡이라고 비판하면 C1	'오랜만에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 영화는 영화로 봐야'	작품성군에 합산
C. 역사적 사실성과 창작 윤리 비판						
C1	**역사왜곡·음모론 비판**	영화가 확정된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배후설을 사실처럼 그렸다는 비판	'역사왜곡', '음모론', '선동', '소설', '날조', '허구를 사실처럼'	왜곡을 부정하면 B2	'음모론을 사실처럼 만들면서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만듦 그게 선동이야', '근거 없는 소설을 왜 사실처럼 만드나?'	역사 왜곡과 음모론 비판 (10.5%)
C2	**피해자·유족 인격권**	고인과 유족의 명예, 자녀의 생존을 들어 영화의 서술을 비판	'고인모독', '유가족',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그렸다는 비판이 역사왜곡 논증의 일부이면 C1과 중복 집계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고인 모독이자 유가족 2차 가해'	C1에 합산
C3	**제작진 의도·창작 윤리**	감독·제작사의 정치적 의도, 제작 동기, 돈벌이 목적 등 창작 주체를 향한 비판	'감독이 좌파', '정치 영화', '의도가 뻔함', 제작사 언급	이념 낙인만 있고 제작 의도 언급이 없으면 D1	—	C1에 합산
D. 정치·이념 프레임						
D1	**이념 낙인**	영화·제작진·관람층·비판층을 '좌파·빨갱이·종북' 또는 '극우·일베' 등으로 규정	'좌파식', '빨갱이', '종북', '극우', '일베'	북한 체제 선전론은 D2	'좌파식 역사 왜곡. 돈 아깝다', '그냥 빨갱이 영화임'	사료 검증군 보조 (9.9%)
D2	**북한·체제 선전론**	영화가 북한의 주장이나 북한 영화를 따랐다는 주장, 간첩·북한 연루 언급	'북한', '김정일', '민족과 운명', '간첩', '북한이 인정한 사건'	단순 이념 낙인은 D1	'2002년 이 암살 사건은 북한이 인정한 사건임 누가? 김정일이'	D1에 합산
D3	**실존 인물 평가**	박정희·육영수·박근혜·문세광 등 실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본문의 중심	인물의 행위·책임·평가, '박정희가 본인 아내를 쏴죽였다?'	인물 언급이 역사왜곡 논증의 근거일 뿐이면 C1	'박정희가 본인 딸이 있는데 본인 아내를 쏴죽였다? 그럼 박근혜는 그걸 몰랐을까?'	C1 또는 D1에 합산
E. 플랫폼·공론장						
E1	**평점 조작·플랫폼 불신**	알바, 매크로, 평점 조작, 네이버의 집계·정렬에 대한 의심	'알바', '평점 조작', '10점 댓글 알바 풀었다', '평점 테러', '네이버 뭐하냐'	관람평 내용이 아닌 영화 자체를 비판하면 해당 코드	'10점 댓글 알바 풀었다', '중국인·좌파 별점 조작'	네티즌 1점 추가 어휘
E2	**논란 동기 관람**	논란·화제성 때문에 직접 확인하러 관람했다는 서술	'하도 논란이라', '궁금해서', '직접 보러 갔다'	확인 후의 평가가 본문의 중심이면 그 평가의 코드	'하도 논란이라 직접 보러 갔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기타
F. 관람 가치 판단						
F1	**돈·시간 아깝다**	관람 비용과 시간에 대한 후회, '1점도 아깝다' 등 가치 부정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1점도 아깝다', '최악의 졸작'	후회의 근거가 역사왜곡이면 C1이 주요 주제	'1점도 아깝다', '시간과 돈이 아까운 최악의 졸작'	사료 검증군 보조 (11.4%)
Z. 기타						
Z1	**단순 감상·무근거 평가**	5자 이상이지만 근거 없이 호불호만 밝힌 관람평	'2026년 최악의 영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ㅠㅠ', '그냥 최고'	근거가 한 단어라도 있으면 해당 코드	'2026년 최악의 영화.'	기타
Z2	**기타**	위 코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내용 (상영관 환경, 다른 영화 비교, 광고 등)	—	—	—	기타

C.5 주요 주제 배정 규칙과 중복 주제 집계 규칙

관람평 한 건에는 주요 주제 코드 하나를 반드시 배정하고, 중복 주제에는 본문에 나타난 코드를 모두 기록한다. 주요 주제의 비율 합은 100%이고, 중복 주제의 비율 합은 100%를 넘을 수 있다.

주요 주제 배정 순서

1. 본문에 하나의 주제만 있으면 그 코드를 배정한다.
2. 여러 주제가 있으면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문장 수 기준, 같으면 글자 수 기준)을 차지하는 주제를 배정한다.
3. 분량이 같으면 첫 문장의 주제를 배정한다.
4. 한 주제가 다른 주제의 근거로만 쓰였으면 결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배정한다. '좌파식 역사 왜곡. 돈 아깝다'는 이념 낙인(D1)과 가치 부정(F1)이 함께 있지만, 판단의 핵심은 역사 왜곡이므로 주요 주제는 C1, 중복 주제는 C1·D1·F1이다.
5. 위 규칙으로도 정하기 어려우면 비고란에 '경계'라고 적고 재검토 단계에서 확정한다.

중복 주제 기록 규칙

- 주요 주제 코드는 중복 주제에 항상 포함한다.
- 한 주제는 언급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기록한다.
- 키워드가 들어 있어도 그 주제를 실제로 다루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역사왜곡 키워드에 잡히지만 주제는 B2이고, C1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경계 사례와 처리

경계 사례	처리	근거
역사왜곡 비판 + 이념 낙인 ('좌파식 역사 왜곡')	주요 C1, 중복 C1·D1	낙인은 수식어, 판단은 왜곡 여부
역사왜곡 비판 + 돈·시간 아깝다	주요 C1, 중복 C1·F1	후회의 근거가 왜곡
연기 칭찬 + 왜곡 반박 ('연기는 좋았고 왜곡이라 느끼지 않았다')	분량이 많은 쪽을 주요로, 같으면 첫 문장	규칙 2·3
실존 인물 언급이 왜곡 논증의 근거 ('박정희가 아내를 쏴죽였다? 소설이다')	주요 C1, 중복 C1·D3	인물 평가가 아니라 사실성 논증
영화의 메시지에 대한 공감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평점과 무관하게 본문에 명시된 평가 대상과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주요 주제를 배정한다. 방향을 판단할 수 없으면 중립·혼합 또는 판단 불가로 분류한다.	평점과 본문 입장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평점에 따른 분류 편향을 방지한다.
평점 조작 의심 + 영화 비판	영화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그 코드를 주요로, 조작 의심은 중복 E1	E1은 관람평 공간에 대한 발언
논란 동기 관람 후 평가 ('논란이라 봤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주요 B2 또는 A1, 중복 E2	관람 동기보다 관람 후 판단이 중심
1점 관람평인데 본문은 옹호 (평점 오기 추정)	본문대로 코딩, 입장 P1, 비고 '불일치'	평점은 수정하지 않음

C.6 키워드 분석 규칙

키워드 분석은 본문에 특정 표현이 들어 있는지만 판별하고, 의견의 방향은 판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왜곡' 키워드는 '명백한 역사왜곡'과 '왜곡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에 모두 잡힌다. 방향은 C.3의 본문 입장 변수로 확인한다. 한 관람평이 여러 키워드에 동시에 잡힐 수 있으므로 키워드별 비율의 합은 100%를 넘는다.

전처리. 판별 전에 본문의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영문은 소문자로 바꾼다. 띄어쓰기 변형('역사왜곡'과 '역사 왜곡')은 이 전처리로 하나가 된다. 어미 변형('재미있다', '재밌다', '재미있었다')은 어간만 잡는 정규식으로 통합한다.

키워드 범주와 정규식 (본문 표 5, 그림 12 기준)

범주	정규식 (공백 제거 후 적용)	비고
역사왜곡	역사왜곡 | 왜곡	옹호 리뷰에서는 부정문 다수
음모론	음모론 | 음모	—
선동	선동	—
좌파	좌파 | 빨갱이 | 종북 | 좌빨	정치적 낙인 표현
북한	북한 | 김정일 | 김일성	—
연기·배우	연기 | 배우 | 박해일 | 유해진 | 이민호	배우 실명은 별도 집계
재미	재미 | 재밌	'재미있', '재밌었' 포함
몰입	몰입	—
기자·언론	기자 | 언론	'언론탄압' 포함
돈·시간 아깝다	아깝	'돈아깝', '시간아깝', '1점도아깝' 포함
육영수·박정희·박근혜	육영수 | 박정희 | 박근혜	실존 인물
평점테러	평점테러 | 별점테러	—
극우·일베	극우 | 일베	—

집계용 상위 범주. 그림 12와 본문 4.5절의 '사료 검증군'과 '작품성군'은 아래 정규식으로 합산한다. 상위 범주 안에서는 한 관람평을 한 번만 센다.

상위 범주	정규식	구성 어휘
사료 검증군 (9개)	왜곡 | 음모 | 선동 | 조작 | 날조 | 고증 | 허구 | 픽션 | 소설	왜곡, 음모론, 선동, 조작, 날조, 고증, 허구, 픽션, 소설
작품성군	연기 | 배우 | 박해일 | 유해진 | 이민호 | 재미 | 재밌 | 몰입	연기, 배우, 재미, 몰입 등

검증 절차. 정규식 판별 결과는 범주별로 표본 100건을 무작위 추출해 연구자가 직접 읽고 오탐을 확인한다. 본문 3.3절에 기록된 '왜곡' 표본 100건 확인은 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오탐률이 10%를 넘는 범주는 정규식을 수정하고 전체를 다시 판별한다. '조작'은 '평점 조작'(E1)과 '역사 조작'(C1)에 모두 잡히므로, 사료 검증군 집계에서는 '평점조작'과 '별점조작'을 제외한다.

C.7 코딩 절차

분류는 연구자 1인이 수행했으며,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내용분석(Krippendorff, 2018)의 방법을 따랐다. 절차는 다음 세 단계로 진행했다.

1. **기준 수립.** 관람평 일부를 먼저 읽고 반복해 나타나는 주제를 정리해 C.4의 주제 코드와 C.5의 배정 규칙을 정했다.
2. **전수 분류.** 확정한 기준으로 2차 수집 관람평 전체(실관람객 3,700건, 네티즌 9,335건)를 분류했다. X1(스포일러 가림 126건)·X2(초단문) 제외분은 자동 규칙으로 먼저 걸러냈다.
3. **재검토.** 비고란에 '경계' 또는 '불일치'로 표시한 사례는 전수 분류 후 다시 읽어 코드를 확정하고, 반복되는 판단은 C.5의 경계 사례 표에 규칙으로 반영했다.

C.8 코드북 적용의 한계

이 코드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주제는 본문의 표면 내용이다.** 코드는 관람평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록할 뿐, 작성자의 실제 관람 여부나 작성 동기를 알려주지 않는다. 네티즌 탭의 B1·A1 관람평이 실제 관람에 근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키워드 비율은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역사왜곡' 키워드가 옹호 리뷰 4.0%에 잡힌 것은 대부분 '왜곡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이다. 키워드 비율을 비판 비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코드 체계는 이 영화의 논쟁에 맞춰 만들었다.** D2(북한·체제 선전론), D3(실존 인물 평가), E1(평점 조작)은 이 사건에 특수한 코드다. 다른 영화에 적용할 때는 A·B·C·F와 Z를 공통 코드로 쓰고, D·E는 해당 작품의 논쟁에 맞게 다시 정의해야 한다.
- **짧은 관람평의 정보량이 적다.** 5자 이상 관람평도 상당수가 한 문장이어서 중복 주제가 1개인 경우가 많다. 중복 주제 비율은 긴 관람평이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집단 간 비교에는 주요 주제 비율을 우선 사용한다.
- **삭제·숨김 처리된 관람평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딩 대상은 수집 시점에 화면에 표시된 관람평뿐이다. 플랫폼이 삭제한 관람평의 주제 분포는 알 수 없다.

부록 D

해외 주요국의 리뷰·플랫폼 투명성 제도와 집행 사례

본 부록은 [표 21]의 제도 비교에 활용한 법령, 판결 및 규제기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일본·EU·영국은 플랫폼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지만,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1. 미국: 허위 리뷰와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소비자 리뷰 및 추천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허위 리뷰, 대가성 평가, 특정 리뷰의 부당한 억제 등을 금지했다. 2025년 12월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10개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는 법 위반의 최종 확정이 아닌 사전 경고 조치다.

2. 일본: 지정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와 평점 알고리즘 관련 판결

일본은 2021년 시행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공개와 운영상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별도로 음식점 평가 플랫폼 타베로그(食べログ)의 평점 알고리즘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2022년 1심 플랫폼 패소, 2024년 항소심 플랫폼 승소를 거쳐 2026년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플랫폼 승소가 확정됐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3. EU: 추천시스템의 주요 기준 공개와 플랫폼 감독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추천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와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 AliExpress의 광고·추천시스템 투명성 개선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X의 투명성 의무 위반에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EU의 규제 방식은 국가의 감독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영국: 부정적 리뷰의 누락과 평점 표시 방식에 대한 조사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Act 2024)」을 통해 허위 리뷰와 소비자를 오도하는 평가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3월 부정적 리뷰의 미게시, 평점 과대 표시, 대가성 평가 등의 의혹과 관련해 5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착수는 위법 확정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4.8.14.). Federal Trade Commission Announces Final Rule Banning Fake Reviews and Testimonials. Press Release.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8/federal-trade-commission-announces-final-rule-banning-fake-reviews-testimonial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5.12.22.). FTC Warns 10 Companies About Possible Violations of the Agency's New Consumer Review Rule. Press Release.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12/ftc-warns-10-companies-about-possible-violations-agencys-new-consumer-review-rule

일본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2021).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digitalplatform/transparency.html

東京高等裁判所. (2024.1.19.).「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令和4年(ネ)第3422号).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90/092890_hanrei.pdf

毎日新聞. (2026.3.6.).「『食べログ』アルゴリズム変更、独禁法に違反せず　最高裁も支持」. https://home.kingsoft.jp/news/news/mainichi/20260306k0000m020272000c.html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2.10.19.).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s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065

European Commission. (2025.6.18.). Commission accepts commitments offered by AliExpres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akes further action on illegal products. Press Releas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accepts-commitments-offered-aliexpress-under-digital-services-act-and-takes-further

European Commission. (2025.12.5.). Commission fines X € 120 million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Press Releas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fines-x-eu120-million-under-digital-services-act

영국

UK Parliament. (2024).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4/13/content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2025.4.4.). Fake reviews: Guidance (CMA20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ke-review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2026.3.27.). Fake and misleading reviews: 5 businesses under CMA investigation. Press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fake-and-misleading-reviews-5-businesses-under-cma-investigation

참고문헌

1. 학술문헌

국내 학술문헌

기경량. (2025). 역사 창작물의 왜곡 논란과 역사학의 역할: 드라마 〈조선구마사〉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연구, 62, 7-40. https://doi.org/10.35559/TJOH.62.1

이하나. (2022). 공공역사로서의 역사영화와 개연성으로서의 역사. 역사비평, 139, 168-203. https://doi.org/10.38080/crh.2022.05.139.168

해외 학술문헌

Bennett, W. L., & Segerberg, A.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https://doi.org/10.1080/1369118X.2012.670661

Cantone, G. G., Tomaselli, V., & Mazzeo, V. (2025). Review bombing: Ideology-driven polarisation in online ratings: The case study of The Last of Us (part II). Quality & Quantity, 59(Suppl. 1), 315-341. https://doi.org/10.1007/s11135-024-01981-z

Douek, E. (2022). Content moderation as systems thinking. Harvard Law Review, 136(2), 526-607.

Evans, R. J. (2018). In defence of history. Granta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Gillespie, T. (2014). The relevance of algorithms. In T. Gillespie, P. J. Boczkowski, & K. A. Foot (Eds.), Media technologies: Essays on communication, materiality, and society (pp. 167-194). MIT Press.

Gillespie, T. (2018). Custodians of the internet: Platforms, content moderation, and the hidden decisions that shape social media. Yale University Press.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ans.).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Hartman, A. (2015). A war for the soul of America: A history of the culture wa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nter, J. D. (1991).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Basic Books.

Jeong, J., Kang, J.-H., & Moon, S. (2020). Identifying and quantifying coordinated manipulation of upvotes and downvotes in Naver News commen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14(1), 303-314. https://doi.org/10.1609/icwsm.v14i1.7301

Kaufmann, E. (2024). Taboo: How making race sacred produced a cultural revolution. Forum.

Krippendorff, K. (2018).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SAGE Publications.

Lorenz, C. (1998). Can histories be true? Narrativism, positivism, and the "metaphorical turn." History and Theory, 37(3), 309-329. https://doi.org/10.1111/0018-2656.00056

Luca, M., & Zervas, G. (2016). Fake it till you make it: Reputation, competition, and Yelp review fraud. Management Science, 62(12), 3412-3427. https://doi.org/10.1287/mnsc.2015.2304

Mounk, Y. (2023). The identity trap: A story of ideas and power in our time. Penguin Press.

Muchnik, L., Aral, S., & Taylor, S. J. (2013). Social influence bias: A randomized experiment. Science, 341(6146), 647-651. https://doi.org/10.1126/science.1240466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2), 43-51. https://doi.org/10.1111/j.1460-2466.1974.tb00367.x

Park, I., Shim, H., Kim, J. H., Lee, C., & Lee, D. (2023). The effects of popularity metrics in news comments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Evidence from an internet portal site. The Social Science Journal, 60(2), 367-382. https://doi.org/10.1080/03623319.2020.1768485

Porten-Cheé, P., & Eilders, C. (2020). The effects of likes on public opinion perception and personal opinion. Communications, 45(2), 223-239. https://doi.org/10.1515/commun-2019-2030

Rosenstone, R. A. (1995).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Salganik, M. J., Dodds, P. S., & Watts, D. J. (2006). Experimental study of inequality and unpredictability in an artificial cultural market. Science, 311(5762), 854-856. https://doi.org/10.1126/science.1121066

Shmargad, Y., & Klar, S. (2020). Sorting the news: How ranking by popularity polarizes our politics. Political Communication, 37(3), 423-446. https://doi.org/10.1080/10584609.2020.1713267

White, H. (1988). Historiography and historiophoty.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5), 1193-1199. https://doi.org/10.2307/1873534

Woolley, S. C., & Howard, P. N. (Eds.). (2018). Computational propaganda: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political manipulation on social media. Oxford University Press.

2. 역사 사건·국가기록원 자료

국가기록원. (2006, 12월 1일). 박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 사건) [역사적 사건 주제설명]. 국정분야주제별검색.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5&sitePage=1-2-1

이상호. (2023, 9월 23일). 8·15저격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770

3. 국내 언론 보도 및 플랫폼 공지

김대영. (2026, 7월 2일). 구글 맹추격에도 격차 벌린 네이버…'AI 검색' 전면 배치 통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019700g

김민주. (2026, 10월 4일). 암살자(들), 관람평 매크로 조작 정황 포착…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2168020

김승필. (2026, 10월 13일).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의 아들이 본 '암살자(들)'과 박정희 시대. 뉴스버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4

김재형. (2026, 10월 4일). '암살자(들)' 평점 누군가 조작했나…네이버, 수사 의뢰.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004/134783509/1

김재환. (2021, 7월 21일).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실형 확정.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20198

네이버 영화 고객센터. (2026, 9월 29일). 최근 관람평 및 공감·비공감 중복 등록 오류 관련 후속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https://help.naver.com/notice/noticeView.help?noticeNo=34603&serviceNo=5612&lang=ko

신정인. (2026, 10월 4일). 나경원 "암살자(들) 네이버 평점 게시판 여론 조작 의심…서버 로그 파헤칠 것".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4000025

윤혜원. (2026, 10월 2일). 與 노종면 "암살자(들) 평점테러 매크로 사용 정황…네이버 경찰 고소".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188

최선욱. (2017, 9월 10일).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등장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정체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22504

허장원. (2026, 10월 13일). 단 한 번도 1위 안 놓쳤다…개봉 20일 만 '300만' 돌파한 역대급 韓 영화. TV리포트. https://tvreport.co.kr/breaking/article/1083085/

4. 해외 플랫폼 사례 자료

Fisher, C. (2020, July 17). Metacritic changes its user review policy to combat score bombing. Engadget. https://www.engadget.com/metacritic-score-bombing-game-review-changes-150200740.html

Flood, A. (2017, September 14). Amazon redacts one-star reviews of Hillary Clinton's What Happene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sep/14/amazon-redacts-one-star-reviews-of-hillary-clintons-what-happened

Game Developer. (2019). Steam user reviews will no longer count 'off-topic review bombs'. https://www.gamedeveloper.com/business/steam-user-reviews-will-no-longer-count-off-topic-review-bombs-

Hijazi, J. (2017, September 15). Reviews of Clinton's memoir were deleted for violating company guidelines, Amazon says. PBS NewsHour. https://www.pbs.org/newshour/arts/reviews-clintons-memoir-deleted-violating-company-guidelines-amazon-says

IMDb Help. (n.d.). Weighted average ratings. https://help.imdb.com/article/imdb/track-movies-tv/weighted-average-ratings/GWT2DSBYVT2F25SK

IMDb. (2026, February 9). IMDb ratings FAQ. https://help.imdb.com/article/imdb/track-movies-tv/faq-for-imdb-ratings/G67Y87TFYYP6TWAV

Murphy, J. K. (2023, May 31). 'The Little Mermaid' user rating weighted by IMDb after 'unusual' influx of negative scores. Variety. https://variety.com/2023/digital/news/little-mermaid-review-bombing-imdb-ratings-change-1235630089/

Peters, J. (2021, January 29). Google salvaged Robinhood's one-star rating by deleting nearly 100,000 negative reviews.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1/1/28/22255245/google-deleting-bad-robinhood-reviews-play-store

Spangler, T. (2019, May 23). Rotten Tomatoes revamps movie audience scores to focus on verified ticket buyers. Variety. https://variety.com/2019/digital/news/rotten-tomatoes-audience-scores-verified-fandango-ticket-buyers-1203224424/

StatCounter. (n.d.). Search engine market share worldwide. https://gs.statcounter.com/search-engine-market-share

Valve. (2019, March 15). User reviews revisited. Steam News. https://steamcommunity.com/games/593110/announcements/detail/1808664240333155775

5. 법령·판례 및 제도 자료

국내 법령·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결정(2004라439).

헌법재판소. (2020, 12월 23일).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2017헌마416).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941840&cbIdx=110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해외 법령·판례 및 제도 자료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c. 13 (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4/13/contents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 August 22). Trade regulation rule on the use of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Federal Register, 89(163), 68034-68079.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24-08-22/2024-1851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n.d.).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information_economy/digital_platforms/index.html

東京高等裁判所. (2024, January 19).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 (令和4年(ネ)第3422号).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90/092890_hanrei.pdf

毎日新聞. (2026, March 6).『食べログ』アルゴリズム変更、独禁法に違反せず 最高裁も支持. https://home.kingsoft.jp/news/news/mainichi/20260306k0000m020272000c.html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202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77, 1-102.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065/oj

6. 연구 수집·관찰 자료

네이버 영화. (2026).《암살자(들)》 관람평: 실관람객 및 네티즌 탭 [온라인 관람평 데이터]. 2026년 10월 10일 및 10월 17일 수집.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암살자들+평점

영화진흥위원회. (2026).《암살자(들)》 일별 누적 관객수: 2026년 9월 23일~10월 24일 [데이터 세트].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https://www.kobis.or.kr

전유원. (2026). 네이버 영화《암살자(들)》 관람평 페이지 현장 확인 기록: 2026년 9월 29일 22시 및 9월 30일 11시 [화면 캡처 자료].

표·그림 목록

1. 표 목록

번호	표 제목	쪽
표 1	주요 발견별 핵심 지표	3
표 2	일자별 주요 전개와 지표 변동	4
표 3	수집 개요와 절차	13
표 4	두 탭 모두 평점은 양극에만 있다	13
표 5	키워드 분석 규칙	14
표 6	데이터의 한계와 그에 따른 해석의 제약	15
표 7	공감 순위 구간별 평점대 분포	17
표 8	네티즌 관람평의 평점 구간별 공감 비중(10.1~10.17 작성분 26,373건)	17
표 9	공감 1위 관람평의 시점별 표시값	19
표 10	극단값 처리 방식별 저평점 공감 점유율	19
표 11	공감수 표시값 변경에 대한 가설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	20
표 12	인접 관람평 공감 및 비공감 수치(최신순 정렬)	24
표 13	공감·비공감 반응 패턴의 해석과 검증 과제	25
표 14	실관람객 공감 상위 10개 댓글	27
표 15	네티즌 탭 평점 1점에는 '알바·조작·북한·간첩'이 추가됐다	28
표 16	주요 사법 판례가 공론장에 주는 시사점	29
표 17	정책 과제별 제도 개선 권고안과 추진 시점	31
표 18	플랫폼 운영 검증 영역과 요구 자료	32
표 19	현대사 사실 검증의 평가 범주와 판정 기준	33
표 20	해외 플랫폼의 평점·리뷰 개입 사례	34
표 21	미국·일본·EU·영국의 리뷰·플랫폼 투명성 제도 비교	35
표 22	단계별 정책 과제와 실행 로드맵	35

2. 그림 목록

번호	그림 제목	쪽
그림 1	사건 타임라인	3
그림 2	세 측면의 여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12
그림 3	집단·평점 구간별 관람평 건수와 반응 점유율	16
그림 4	1점 리뷰의 공감 '눈덩이'는 개봉 사흘째부터 멈췄고, 1위 댓글의 표시값은 열흘 사이 13분의 1로 줄었다	18
그림 5	동일 댓글의 공감 표시값 급락	18
그림 6	9월 28~29일, 실관람객 1점이 여섯 배 상승 후 하루 만에 약화	21
그림 7	실관람객 일별 10점·1점 관람평 작성 건수와 누적 관객 추이	22
그림 8	네티즌 관람평의 평점 구성과 일별 작성 건수 추이	22
그림 9	비판의 전선은 실관람객 탭에서 네티즌 탭으로 사흘 늦게 옮겨갔다	23
그림 10	인접 관람평에서 유사한 공감·비공감 수치가 반복	24
그림 11	네티즌 관람평의 공감·비공감 반응 추이 비교	25
그림 12	저평점은 역사적 사실성을, 고평점은 작품성과 관람 경험을 강조했다	26